

리아호나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24, 30, 56, 64쪽

영혼을 구원하는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여섯 가지 원리, 8쪽

시온 진영: 선임 지도자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따르면서 얻는 교훈, 14쪽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시련을
통해 내가 배운 것, 34쪽



“1847년의 개척자들”이라는 배너 아래 모인 사람들. 이들은 1847년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로 1905년 7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 교회 역사박물관 제공

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잘 견딜 때 주어지는 보상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집 기사

- 12 진정한 기적
돈 열 설
파올라가 치유된 것도 기적이었지만,
구주께서 그녀의 가족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은 더 큰 기적이었다.

- 14 주님 편에 서서: 시온 진영에서
배우는 교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동료 성도들을 돕기 위해 1,450 km를
여행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값진 교훈.

- 24 경청하는 법을 배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다인종
지부
매트 맥브라이드, 제임스 골드버그
인종 차별 정책 아래에서도, 이
성도들은 서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

- 28 사랑하는 조국을 치유하다: 줄리아
마빔벨라의 신앙
매튜 케이 하이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비극에도
불구하고, 줄리아 마빔벨라는 결국
평안을 찾았다.

- 30 테시테리아 야네즈: 여성 개척자
클린턴 디 크리스텐슨
테시테리아 야네즈는 꿈과 영감을
따르면서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었다.

- 34 하나님과 협력하여 아들 양육하기
캐미 크룩스틴
심한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고 있는 내
아들을 돌보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과도 같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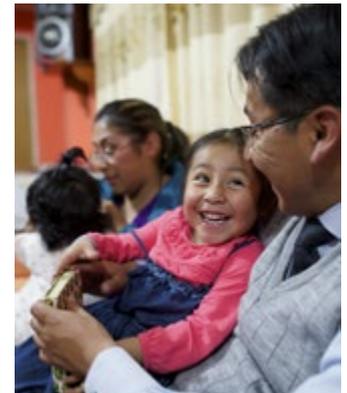
교회 본부 기사

- 8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브라이언 헬스브로우

- 38 신앙의 초상
무릴로 비센테 레이치 리베이로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마지막
손수레를 끌던 사람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



표지
볼리비아의 한 개척자 가족 사진: 레슬리 닐슨.



48

44 나를 구한 유일한 것
 수호 다카야마가 애나 리사 클라크
 멀린에게 들려준 이야기
 나는 절망감에 빠졌고 외로웠다.
 언젠가 내가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48 가장 중요한 배역
 애니 매코믹 보너
 나는 연극에서 주연을 맡게 되어
 너무나 기뻐다. 대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나무
 사이를 보세요.



56

50 일주일 내내 굳건하게 생활하기
 여러분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5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간증을 얻는 법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55 해답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판단할 수
 있을까? 외설물을 본 것에 대해
 감독님께 이야기해야 하나?

56 여러분의 개척자 여정
 —여러분은 실제로 개척자다
 애런 엘 웨스트
 오늘날의 개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의 개척자를 의미한다.

60 마농을 위한 노래
 리차드 엠 롬니
 마농은 건강상의 문제로 공연 발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마농을 잊지 않았다.

63 포스터: 더 높이 오르십시오



76

64 시온으로 가는 길
 제시카 라슨
 매리는 혼자서 그녀의 가족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데리고 가야
 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68 선지자를 위한 음식
 레베카 제이 칼슨
 실로티는 배가 무척 고파지만 김볼
 회장님을 위해 음식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70 질문 코너: 음식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1 여러분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래리 에스 케처 장로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 없이
 그리스도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72 마술 지갑
 어맨다 워터스
 지갑을 가져다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올까요?

74 사도들의 답변: 가족 평의회가
 무엇인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75 교회사의 인물들: 커틀랜드와 지혜의
 말씀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킴 웹 리드

79 색칠하기: 나는 경전을 읽는 것이
 좋아요

2017년 7월호, 제54권, 제7호

리아호나 1444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편집위원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신시사도 정회원: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앨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이 이 스티븐스, 데일 지 랜던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슈턴,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드, 더글러스 디 홈즈,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레리 알 로렌스, 캐슬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하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일다 애머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폴러, 게리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헨경,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잭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앤 셀루, 폴 벤덴버그, 머러사 윌슨

편집 인턴: 메건 알크넥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스

디자인: 저널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캄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톱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데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마이클 넬슨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지적 관리: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에데어, 콘니 바슬프 브릿지, 줄리 버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넬슨, 가일 타데 라퍼티, 테레 리차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국,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16호, 제54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 (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지침" 혹은 "지시"를 뜻하는 문명적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바스키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ly 2017 Vol. 41 No. 7.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마술 지갑”, 72쪽: 가정의 밤을 시작하면서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를 부른다.(찬송가, 163장) 가족과 함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극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누군가를 어떤 활동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맞추어 상황을 설정하고 적용해 본다.

“가족 평의회가 무엇인가요?” 74쪽: 여러분 가족의 가족 평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 평의회 규칙과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다.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들어 본다. 규칙과 목표에는 전자 기기 끄기, 서로의 말 경청하기, 앞으로 계획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가족의 장기 목표 세우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맞춰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다음 번 가족 평의회를 고대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활용하기

liahona.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읽고, 나누고, 찾아 보십시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l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8

가정 복음 교육, 43

가족 역사, 41

가족, 12, 34, 74

간증, 54

개종, 12, 44

개척자, 14, 24, 28, 30, 56, 64

결혼, 40

겸손, 14

경전, 79

교육, 40

교회사, 14, 24, 30, 64, 75

금식, 68, 79

기적, 12

단합, 7, 24, 60

명철, 24, 28

모범, 55, 71

봉사, 4, 43, 60

선교 사업, 12, 28, 30, 42, 44, 71

성찬, 50, 54

순종, 4, 14

시온 진영, 14

신앙, 4, 40, 60, 64, 68

안식일, 38, 50

양육, 34

여성, 28, 30, 64

역경, 4, 14, 41, 44

예수 그리스도, 7, 8, 41, 56, 63, 76, 80

용기, 64, 72

용서, 28

우정, 44, 60, 71

인내, 4, 30, 34, 60, 80

재능, 48

정직, 72

제자 됨, 14, 48, 56, 63, 80

회개, 12, 55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잘 견딜 때 주어지는 보상

저는 젊을 적에 어떤 현명한 지부 회장님의 보좌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지속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한번은 제게 이렇게 조언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접견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여기고 그분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절반 이상의 경우에 그분들을 더 잘 돕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지부 회장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후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야 그분이 이 세상과 삶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셨는지를 실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매우 극심한 시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정제되고 온전해지도록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리버티 감옥에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잘 견디어 내는 것은 그가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마련이며, 때로는 잘 견디어 낸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농작물 재배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족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점점 더 넘쳐 나는 세상의 사악함과 유혹에 맞서 저항하는 청소년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내와 가족을 부양할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젊은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련되어 가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팔리 피 프랫(1807~1857) 장로가 새로운 십이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당시의 제일회장단은 그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모든 생각과 주의를 요구하는 대업에 동참하셨습니다. ... 연마된 화살이 되십시오. ... 온전히 정련되려면 많은 고생, 수고, 시련을 견뎌야만 합니다. ...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받은 그분의 것이며, 이 사업도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분께서 장로님을 북돋워 주시고 들어올려 주실 것입니다.”¹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잘 견디어 낸 후의 결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브리서 12:11)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련에 처해 있을 때 구주께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견디는 과정에서 영혼이 정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기억할 일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5; 엘마서 34:19~29 참조)

두 번째는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대와 유혹과 소란 속에서도 말입니다.(모사이야서 4:30)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려는 유혹이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소망이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더 친절해지시고 인내심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시련의 시기에 주님께 의지하셨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고 그분께 봉사하신다면,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은 그 과정에서 연단되고 정련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시든,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며,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하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

주

1.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79), 120.

참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 20:31

참조)

우리는 주님께 봉사할 때 그분을 알아 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충실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굴하지 않고

인내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임하는 구주의 손길과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성신이 함께하시는 것을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닫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리는 누구나 시련을 겪게 되고, 신앙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는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 방문하기 전에, 그들이 그런 시련을 잘 견디도록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간구해 보고 인도를 구한다. 아이어링 회장이 언급한 원리와 성구들에 대해 토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도, 봉사, 계명 준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러분이 시련을 잘 견디는 데 도움이 된 방법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수도 있다.



청소년



“낮도 다 간 이 저녁에”를 내려받으려면 lds.org/go/7176를 방문한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만다 린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하나를 잃었다. 친구는 뇌동맥류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교회 회원이었지만, 그 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의지할 수 있고 배워왔지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처음이었다.

무엇이라도 내게 평안을 가져다줄 것을 찾으며, 나는 몇 시간을 울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이튿날 밤, 나는 찬송가를 펼쳤다. 책장을 뒤적이는데 “낮도 다 간 이 저녁에”라는 노래가 보였다.(찬송가, 72장) 그중에서 3절 가사가 눈에 들어왔다.

주여 이 밤 외로우니
계시어 주소서
당신이 안 계시오면
내 빛 없나이다
세상 어둠 두려우니

제 집에 계셔서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이 가사를 읽으며 마음 가득 평안을 느꼈다. 주님께서는 그 밤에 내 곁에 머물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찬송가에서 사랑을 느낀 덕분에 그날 밤을 견딜 수 있었고, 나아가 그 후에 찾아온 다른 시련들도 이겨 낼 수 있었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어린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분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등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오른쪽 상자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사랑, 기도, 계명 그림이 모두 하나씩 들어가도록 그림을 그려 넣어 보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부분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딸들은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얻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신앙,
가족,
구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과 육 모두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심으로써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 우리가 두 분의 뜻[과 관심]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기 전에는 하나님 및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유순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까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¹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일은 구주처럼 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다음 찬송가에 표현된 태도를 지니려고 애쓰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주 원하면 내 가리라 ... [주] 하라신 대로 말하리. ... [주] 원하신 대로 되오리.’”²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또한 다음 사실을 상기시켰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의 영은 그 탁월함을 발휘하며, 내면의 싸움은 진정되고,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³

닐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년 회장단 제2 보좌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축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저는 매사를 제 방식대로 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없애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결국 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비해 너무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며 열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은 이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겸손히 노력해 보자.

추가 성구 및 자료

요한복음 17:20~21; 에베소서 4:13; 교리와 성약 38:27; reliefsociety.lds.org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2, 73쪽 (번역 수정).
2. 린다 케이 버튼, “성약을 지키므로써 오는 힘과 기쁨, 그리고 사랑”,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11쪽 (번역 수정).
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72쪽 (번역 수정).
4. 닐 에프 매리엇,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32쪽.



생각해 볼 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그분처럼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브라이언 한스브로우
교회 교과 과정 개발부

구주께서 가르치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면 그분이 가르치신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 어떤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보통 그분께서 가르치신 방법에 집중하곤 한다.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사람들과는 어떻게 교류하셨는가? 결국, 그분은 가장 위대한 교사였다. 하지만 그분처럼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셨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목적”이야말로 교사인 우리와 가르침을 받는 반원들에게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간을 채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방대한 정보를 쏟아 낼 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으셨다. 사실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여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람들을 그분의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구주의 사명과 바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니파이후서 26:24 참조)
우리는 그분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동기가 되었던 바로 그 목적을 우리가 행하는 가르침의 동기로 삼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려는 소망

내가 물몬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모사이야 왕의 아들들이 레이맨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니파이 왕국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지상의 왕국을 포기했다. 그들은 니파이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안전과 안정을 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다소간 얼마라도 구원하려” 그들의 적인 레이맨들에게로 갔다.(앨마서 26:26)

이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느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한다는 것을 ... 견딜 수 없었[으며,] 참으로 어느 영혼이라도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조차 그들을 심히 떨게 하며 전율하게” 했다.(모사이야서 28:3) 바로 그런 동기 덕분에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엘마서 17:5, 14)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가?’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가 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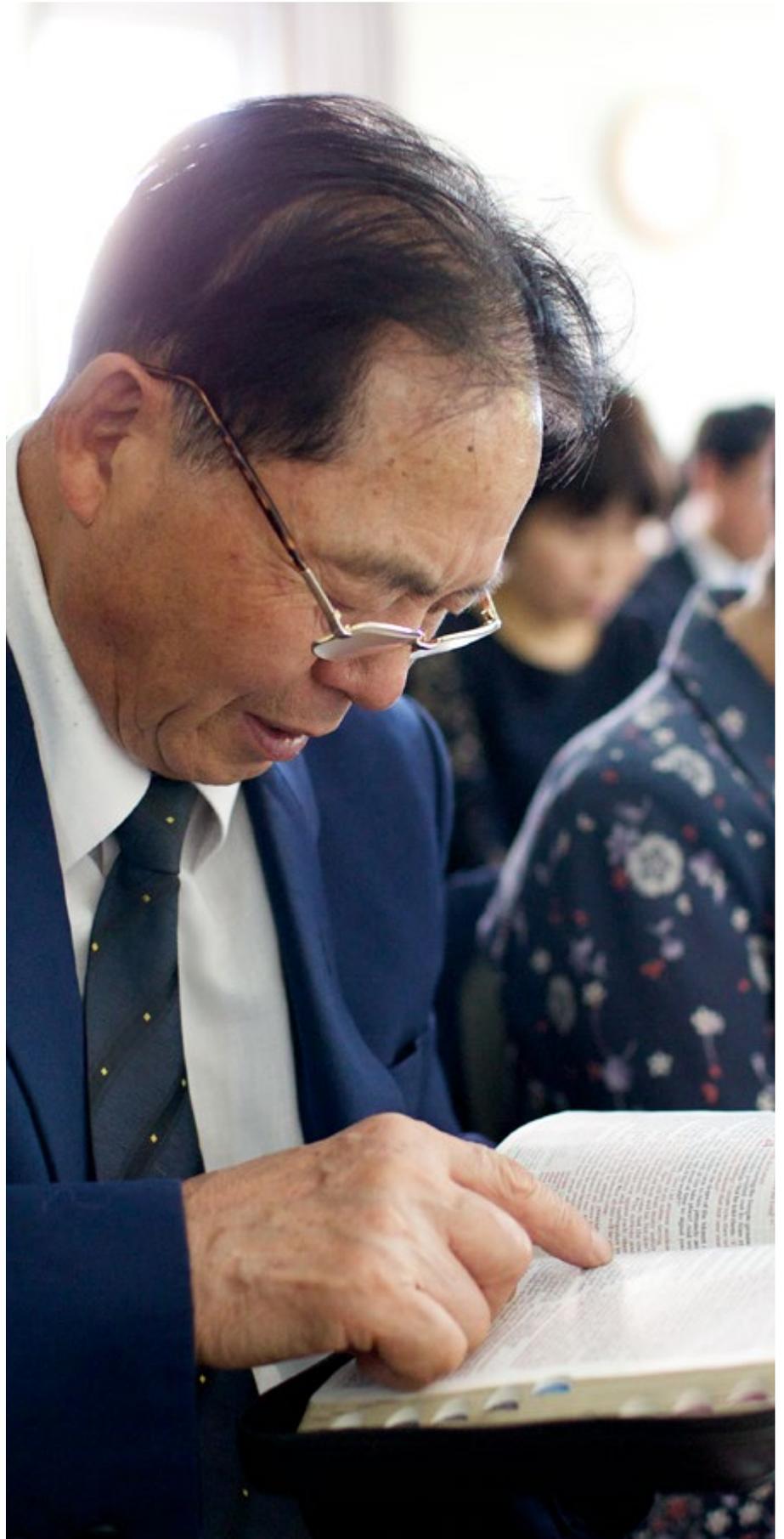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을 구주께서 가르치신 목적에 일치시키려 할 때, 그분께서 가르치신 방법과 그 원리들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들은 단순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 그분과 같은 자가 되게 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다음 제언들과 더불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나오는 다른 제언들을 꾸준히 적용할 때, 우리는 좀 더 그분과 같이 가르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그분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일찍 계시를 구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일조하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온다.(니파이후서 28:30) 그리고 이렇게 계시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하여 자주 계시를 구한다.

사람들을 사랑한다

교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일 것이다. 그것은 각 반원의 이름을 아는 것, 반원들에게 한 주의 안부를 묻는 것, 그들이 전한 말씀을 칭찬하는 것, 또는





그들이 성취한 일을 축하해 주는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보일 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더 수월하게 성신을 받아들인다.

반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공과를 준비한다

영혼의 구원을 돕는 교사는 반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공과 교재를 살펴볼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반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에 집중한다. 공과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반원들의 마음과 가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한다. 교사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할까 뿐만 아니라 반원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는지를 눈여겨본다. 우리는 반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럴 때 반원들은 단합하고, 마음을 열며, 신앙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리에 집중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그들이 잘 가르쳤는지를 얼마나 많은 반원의 참여를 끌어냈는지로 가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만일 반에서 생각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만 교리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영적인 트윅키”라고 부른 것을 주고 있는 것이다.(트윅키: 가운데에 크림이 든, 노란색의 단맛이 많이 나는 손가락 크기의 작은 케이크, 역자 주) 즉 맛은 좋지만 교리의 권능을 통해 영적인 양분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을 반원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은 자신이 지식을 얻는 속도

이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¹
우리는 반원들이 가장 중요한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와 반원이 생각과 느낌을 나눌 때는 항상 그런 의견들을 들은 후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에 본부 주일학교 회장인 태드 알 콜리스터 형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상적인 교사는 반원들의 의견들을 계속하여 교리에 연결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경험을 들으니 이런 성구가 떠오르네요,’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토론했던 그 진리의 권능에 대해 간증해 주실 분 계신가요?’”²
성신이 증거하도록 한다

영혼의 구원을 돕는 교사는 교사의 말과 행동의 목적은 성신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성신이 교사이다. 성신의 한 가지 역할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며, 특히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들의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성신이 이를 반원들에게 증거하도록 성신을 초대해야 한다. 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성신의 권능은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고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성신의 증거하심은 보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³

반원들이 스스로 배우고 행하도록 권유한다

최근에 필자는 어느 주일학교 공과반에 들어간 일이 있다. 그때 교사는 공과를 시작하면서 반원들에게 그 주의 경전



읽기 과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반원들은 스스로 깨닫고 발견한 것에 대해 강력한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교사는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와 토론에 자신이 가르치고자 준비했던 교리적 주안점을 덧붙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가 반원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갖든 권능을 경험해 보도록 격려하고 촉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사로서 우리의 목적은 그저 공과반에서만 훌륭한 경험을 하는 것, 또는 시간을 때우거나 좋은 공과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

Teaching.Ilds.org를 방문하여 어떻게 하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 평의회 모임이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65쪽, 번역 수정.
 2. Tad R. Callister, “Sunday School ‘Discussion Is a Means, Not an End,’” Church News, June 9, 2016, deseretnews.com.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년), 39쪽 참조.

돈 엘 설

파올라 야너스를 치료한 의사들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의학적인 기적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키토에

사는 이 십 대 소녀의 병세가 갑자기 호전된 덕에 파올라의 아버지는 한쪽 신장을 딸에게 줄 수 있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파올라는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인 마르코 야너스의 말대로 그에게 일어난 일 또한 그만큼 놀라웠다.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 자신의 인생에 미친 변화로, 그 또한 새 삶을 얻은 것이다.

파올라는 어렸을 때 신장염을 한 차례 앓은 뒤 신장이 손상되었으나, 의학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런데 열다섯 살 무렵,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한쪽 신장이 기능을 상실했고, 다른 한쪽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투석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파올라는 서서히 죽어 가고 있었다. 하루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폐와 췌장, 심장도 감염되어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녀를 데리고 이식 수술을 받으러 미국이나 쿠바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에콰도르에서 기증자를 찾아야 했다. 검사 결과 파올라의 아버지는 기증자가 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가능했지만, 의료진은 투석 치료 때문에 파올라의 신체 저항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라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파올라는 어떻게든 더 살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 무렵인 1988년 6월,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야너스 가족의 집 문을 두드렸다. 파올라의 어머니인 카르멘은 그때 선교사들을 들인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조롱하려는 마음에서였다고 회상한다. 선교사들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진정한 기적

주님은 파올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파올라의 아버지가 복음으로
개종하는 데도 손길을 미치셨다.



메시지가 있다고 하자, 카르멘은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 딸이 죽어 가는데 뭘 어떻게 돕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은 없다고 믿어요!”

카르멘이 처음에 보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계속 그 집을 찾아갔다. 마르코도
처음에는 딸을 돌보기만도 바쁘는데 선교사들한테까지
관심을 둘 여력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호기심에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그는 선교사들이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르코는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만물의 힘의 근원이거나, 인간과는
동떨어진 어떤 위대한 존재라고 여겼다. 그러나 딸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자, 그는 기도하며 딸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거나 차라리 딸을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정말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보여 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 주십시오.”

기도를 마쳤을 때, 마르코는 파올라의 상태가
변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의료진에게
자신과 딸을 다시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검사를 해 봐야 시간 낭비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마르코의 말을 따랐다.

검사 결과 마르코는 정말 적합한 기증자였고,
파올라는 이식을 받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어 있었다.

수술을 하루 앞두고, 마르코와 파올라는
선교사들에게서 신권 축복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다 수술이 끝나면 회복될
때까지 한동안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르코는 닷새 만에 퇴원했고, 두 달 정도 입원하리라
예상했던 파올라도 단 13일 만에 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 마르코는 신권 축복 덕에 자신들이 이렇게
빨리 나왔다고 여겼고, 선교사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마르코와 카르멘 야너스 부부는 1988년 9월 11일에
침례를 받았다. 수술 전에 선교사 토론을 거쳤던
파올라는 여동생 파트리샤와 함께 11월 3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때쯤에는 아버지 마르코가 아론 신권을
받았으므로 딸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다.

야너스 형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자 딸에게
신장을 기증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마르코는
말한다. “저 대신 아내가 신장을 기증했다면,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을
일삼던 마르코에게는 내세울 만한 삶이 없었다. 그는
기도에 관한 응답을 받고서야 중독을 이겨 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그 자신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셨음을
인정한다.

야너스 형제는 이제 지혜의 말씀과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선교사들이 자신을 가르칠 무렵, 야너스 형제는
한달에 1,000달러나 하는 파올라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가게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십일조의
법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대로 십일조에 대한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일요일에 가게를 닫자, “일요일에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토요일에 물건을 사면서, 더 많이 사갔다”고
한다. 이제 그는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할 때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넉넉한 생활을 한다.

돌이켜 보면 마르코 야너스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이 놀랍기만 하다. 그는 자신이 딸을 살려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온 가족의 영성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한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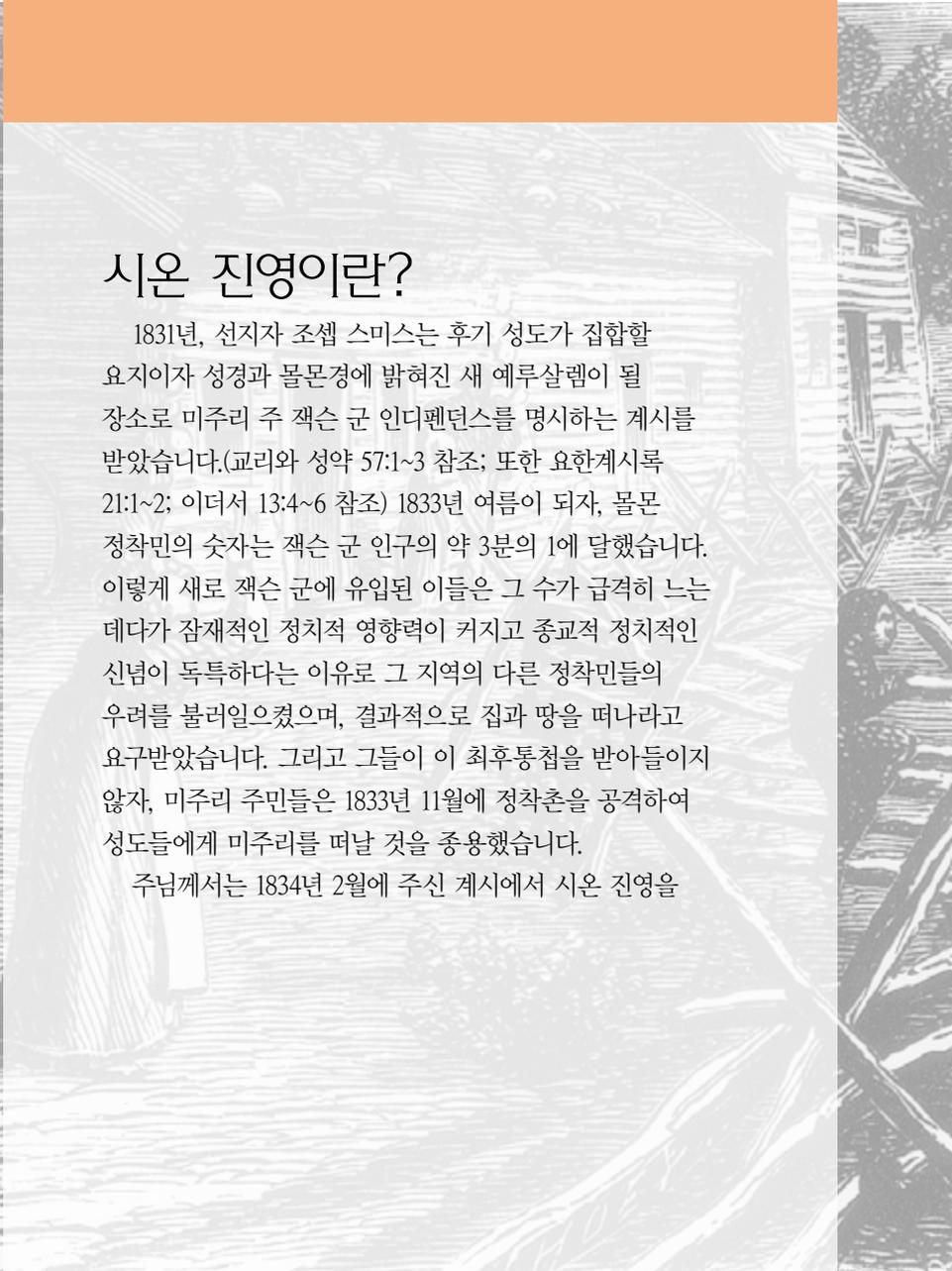
주님

18 34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끌었던 시온 진영 원정은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의 놀라운 본보기입니다. 시온 진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적용되는 소중한 영원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온 진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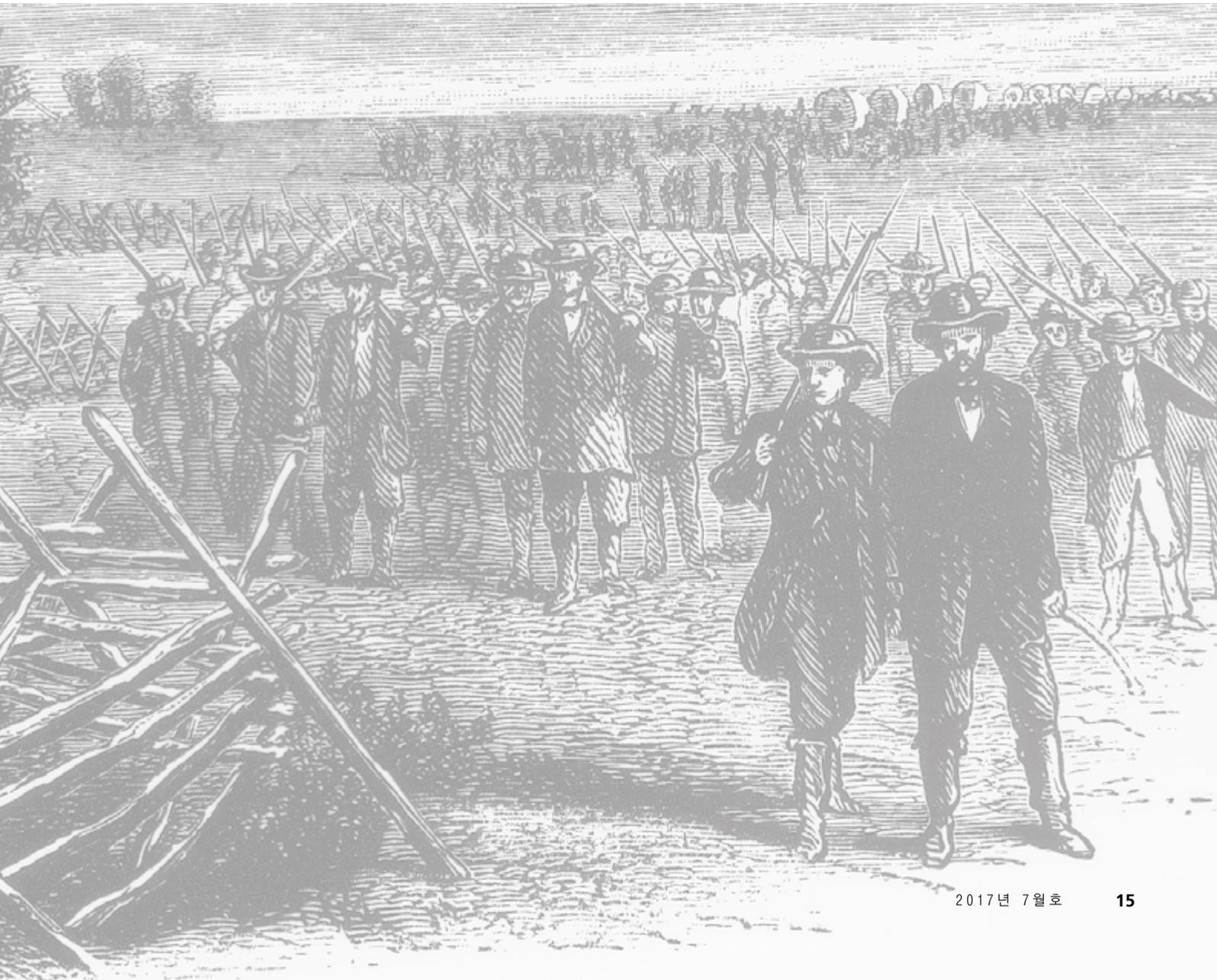
1831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후기 성도가 집합할 요지이자 성경과 물몬경에 밝혀진 새 예루살렘이 될 장소로 미주리 주 잭슨 군 인디펜던스를 명시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57:1~3 참조; 또한 요한계시록 21:1~2; 이터서 13:4~6 참조) 1833년 여름이 되자, 물몬 정착민의 숫자는 잭슨 군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잭슨 군에 유입된 이들은 그 수가 급격히 느는 데다가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종교적 정치적인 신념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다른 정착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집과 땅을 떠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주리 주민들은 1833년 11월에 정착촌을 공격하여 성도들에게 미주리를 떠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1834년 2월에 주신 계시에서 시온 진영을



편에 서서

시분 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1833년 11월, 미주리 주민들이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있는 몰몬 정착지를 공격하며 성도들에게 그 땅을 떠날 것을 종용했다.



꾸리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3편 참조) 이 주님의 군대의 주된 목적은 미주리 주 민병대가 정착민을 그들의 집과 토지로 안전하게 호송하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또 일어날지 모를 공격으로부터 잭슨 군의 몰몬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진영은 궁핍한 성도들에게 자금과 보급품, 그리고 도덕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1834년 5월과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끄는 200여 명의 후기 성도 자원병 부대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주 클레이 군까지 약 1,450km를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와 라이먼 화이트도 미시건 준주에서 그보다 적은 숫자의 자원병을 모집하여 미주리 주로 가서 선지자의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시온 진영에는 브리검 영, 히버시 김볼, 윌포드 우드럽, 팔리 피 프렛, 올슨 하이드 등 교회사에서 쉽게 눈에 띄는 인사가 여럿 몸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겨웠던 이 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당시 일어났던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온 진영 원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건을 간략히 짚어 보려고 합니다.

- 미주리 주지사 대니얼 던클린은 몰몬 정착민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복귀하게끔 민병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교회 지도자들과 미주리 주의 관리들, 그리고 잭슨 군 주민들은 무력 충돌을 피하고 재산 분쟁을 해결하고자 협상에 돌입했으나,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결국,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시온 진영을 해산하라고 지시하시고 이 군대가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까닭을 지적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5:6~13, 19 참조)
- 주님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합법적 수단으로 시온이 회복될 때를 대비하여 그 지역에서 친선을 도모하라고 성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5:23~26, 38~41 참조)

시온 군대는 1834년 6월 말에 작은 그룹들로 쪼개졌고, 1834년 7월 초에 며칠에 걸쳐 최종 제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자원병들은 대부분 오하이오로 돌아갔습니다.

시온 진영에서 배우는 교훈

혹자는, 시온 진영은 잭슨 군에서 성도들을 재건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브리검 영은 미주리 주에서 돌아오던 길에, 시온 진영에 자원할 만큼 신앙이 강하지는 않았던 한 커틀랜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이 무익한 여행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브리검 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원하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저는 지아저 군(커틀랜드가 속한 행정구역, 역사 주)의 부를 다 준다 해도 원점에서 경험한 것과 맞바꾸지 않겠습니다.”¹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라는 브리검 영의 대답을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 봅시다. 이 과업을 행하며 본래 정했던 목적은 성취하지 못했으나, 초기 성도들에게 일생의 축복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비아냥 섞인 질문에 대한 브리검 형제의 대답에는 적어도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시험, 가려냄, 준비에 관한 교훈과 둘째, 선임 지도자들을 주시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배우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180여 년 전 시온 진영의 자원병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험, 가려냄, 준비에 관한 교훈

주님의 군대 안에서 행군했던 굳건한 성도들은 시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헌물을 받아들여이니, 그들의 신앙의 시험을 위하여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되는 일이 내게 필요하도다.”(교리와 성약 105:19)

시온 진영에 다친 육체적 영적 어려움으로는 문자 그대로 가라지에서 밀을 가려내고(마태복음 13:25, 29~30; 교리와 성약 101:65 참조), 양과 염소를 구분 지으며(마태복음 25:32~33 참조), 영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분리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군대에 들어온 남녀들은 저마다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하여 이에 응답했습니다.²

월포드 우드럽이 사업을 정리하고 시온 진영에 합류할 준비를 하자, 친구와 이웃들은 그런 위험한 여정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가지 말게. 가면 목숨을 잃을 걸세.”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주리 주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총알이 내 심장을 관통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해도 나는 가고야 말겠네.”³ 월포드 우드럽은 자신이 충실하고 순종하는 한 악한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실로 1834년 여름은 이 충실했던 남녀들이 자신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보일 때”였습니다.⁴ 그렇지만 선지자 조셉과 함께 미주리 주로 행군한다는 결정은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 번으로 끝나거나, 모든 문제를 아우르거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자주, 그리고 거듭하여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시달리고, 발에는 피맺힌 물집이 잡히며,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시며, 술하게 낙담하고, 진영 내에서 알력과 배반을 겪으며, 악의에 찬 적이 외부에서 가하는 위협을



“우리는 많이들 스스로를 선한 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시간, 매일, 매주 겪는 경험과 고난으로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적인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듯 보이는 여러 선택과 행동이 크게 어우러지자, 그것이 결국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되었습니다.

시온 진영 참여자들의 삶에 일어난 시험과 가려냄은 어떤 준비 과정으로 작용했을까요? 흥미롭게도, 183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형제 중 8명과 이 시기에 부름받은 칠십인 전원은 시온 진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칠십인을 부른 뒤 이어진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미주리에서 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게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나라들에 복음의 문을 열 열두 사람과 그들의 지시를 받고 뒤를 따라갈 칠십인으로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며 아브라함 못지않은 큰 희생을 치러 낸 사람들 가운데서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원회도 부르실 것입니다.”⁵

진정 시온 진영은 모든 자원병은 물론, 특히 주님의 교회를 이끌 많은 미래의 지도자에게 연단하는 자의 불로 작용했습니다.

자원병들이 주님의 군대에서 쌓은 경험은 나중에 교회의 회원들이 더 큰 규모로 이주할 때를 대비해 거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시온 진영 일원 중 스무 명 남짓이 두 차례의 대규모 장정에서 중대장과 소대장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후 4년간 8,000명에서 10,000명의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이주했을 때였고,⁶ 두 번째는 그다음 12년간 약 15,000명의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를 출발하여 솔트레이크 및 로키 산맥 곳곳으로 이주한 서부 대이동 때였습니다. 시온 진영은 일종의 예비 훈련으로서 교회에 막대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834년은 그들이 어느 편에 섰는지를 “보일 때”이자, 1838년과 1846년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우리도 개인과 가족으로서 시온 진영의 일원들처럼 시험받고, 가려내어지고, 준비될 것입니다. 경전과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존중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필멸의 삶에서 겪는 시련과 시험에 대비하고, 그것들을 직면하여 이겨 내며,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강화되리라고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시대와 세대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적 또는 세대적 시험 및 가치를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시절에 지역 대표 모임에 참석하여 선지자로서 경고의 음성을 높이셨습니다. 이제 저는 벤슨 회장님의 메시지를 길게 인용하며, 그분의 시의적절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을 옹호하고 입증할 시험과 기회를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브리검 영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 관해 가장 두려운 점은 그들이 이 나라에서 부유해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잊고, 게을러지며, 교회에서 뛰쳐나와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집단적 폭행, 강탈, 빈곤, 그리고 모든 형태의 박해를 참아낼 것이며, 충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은 부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더욱 교묘하고 영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 모든 시험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은 항상 덜 위협적으로 보이고, 감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의로움에 관한 시험을 거칠 때면 어김없이 고된 싸움을 벌여야 하는 반면, 이 까다로운 시험은 전혀 시험 같지 않아 보이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탓에 모든 시험 중에서도 현혹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사람들이 화평과 번영을 누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들고 맙니다. 물론경은 마지막 날에 사탄은 우리를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왕국을 승리로 이끌도록 6,000년이 넘게 아껴 두신 잠재적인 영적 거인들을 지상에 두셨으며, 악마는 그들을 잠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적은 이들이 크고 사악한 죄를 많이 짓게 만들기란 그다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들을 걸리버처럼 깊은 잠에 빠트리는 한편, 태만이라는 사소한 죄로 그들의 발을 묶어 버립니다. 생기

없고, 무기력하며, 미지근한 거인이 지도자로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더욱 활기차게 가정, 주님의 왕국, 그리고 국가를 들어 올려야 할 잠재적인 영적 거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들 자신을

선한 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강한 가장, 용기 있는 선교사, 용감한 가족 역사 봉사자 및 성전 봉사자, 열렬한 애국자, 헌신적인 정원회 회원이 되는 등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줄음을 물리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⁷

부와 번영, 안락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 강도가 시온 진영에서 행군하겠다고 자원했던 성도들이 감내한 박해와 육체적 고난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선지자 몰몬은 힐라맨서 12장에서 교만의 주기를 간략하고도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와 또한 그 변하기 쉬움을 볼 수 있나니, 참으로 우리는 주께서 그 크고도 한량없는 선하심 가운데 무릇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참으로, 또한 우리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번영하게 하사, 실로 그들의 발,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금과 은과 각양각색의 온갖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 두시며,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또한 요컨대, 자기 백성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때에, 참으로 그때가 곧,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그들의 발 아래 밟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니—실로 이는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심히 큰 번영 까닭이라.”(힐라맨서 12:1~2)

저는 특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마지막 문구에 주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는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심히 큰 번영 까닭이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하는 안락함이라는 집단적 시험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한 몇몇 시험을 거치고 있으나,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도들은 살인, 집단적 폭력, 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내쫓겼고, 굶주리고 헐벗었으며, 추위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은혜로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무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사치스러운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에서 겪은 시험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험인 듯합니다.”⁸

이렇게 후기의 시험과 시련에 관해 현대와 고대의 선지자들이 주는 가르침은 진지하고 엄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해서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경고를 따르면서 경계심을 높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경고하는 날”(교리와 성약 63:58)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고받았고 앞으로도 경고받을 것이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에베소서 6:18) 살피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진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38:30 참조)

누가 주님 편에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영감 어린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에 응할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번영과 교만, 부와 안락함,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망각 등 후기의 고난을 이겨 내기 위해 살피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그것에 충실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 올곧게 걸어나가겠다는 것을 보일 때입니다.(엘마서 53:20~21 참조)

선임 지도자들을 주시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배우라는 교훈

주님의 군대에 있던 굳건한 성도들은 선임 지도자들을 주시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배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시온 진영에 몸담았던 독실한 회원들의 모범과 신앙을 보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팔리 피 프렛의 권고에 응하여 시온 진영에 합류하고자 1834년 4월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갔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의 첫 만남에 관한 우드럽 형제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도록 택하신, 사랑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내 생애 처음으로 이곳에서 만났다. 내가 받은 첫인상은,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 관한 세속적인 선입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어찌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은 바깥에서 표적에 대고 권총을 쏘고 있었다. 두 형제는 총 쏘기를 멈추었고, 조셉 형제는 나를 소개받고 진심 어린 악수를 청했다. 그는 내게 커틀랜드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거처를 내 집으로 삼으라고 했다. 나는 이 권유를 흔쾌히 수락했고, 그와 함께 머무는 동안 크게 교화되고 축복받았다.”⁹

저는 한동안 선지자의 집에서 지내며 분명 선지자의 일상을 관찰할 가장 놀라운 기회를 얻었을 우드럽 형제가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 관한 세속적인 선입견” 너머를 보는 눈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 즉 선지자란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세속적인 선입견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된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저는 2004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고 봉사하게 된 이래, 선임 지도자들을 주시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배우는 것의 의미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매일 이 교회 지도자들의 개성과 다양한 취향, 그리고 고귀한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의 인간적인 한계와 단점을 보고 문제를 느끼며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연약함을 보며 신앙이 고취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계시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우리는 모두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범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약함에서 오는 영향을 막아 주기도 하고 줄여 주기도 합니다. 택함받은 지도자들에게 단점과 결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종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기적입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또 완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분명 하나님께 부르받았습니다.

제사로서 주님의 군대와 함께 미주리 주로 갔던 윌포드 우드럽은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얻지 못할 것들을 경험했다. 우리는 … [선지자]와 함께 1,600km를 이동했으며, 우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지며 그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다. … 시온 진영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¹⁰

1834년 4월 마지막 일요일,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여러 지도자에게 부탁하여 학교 건물에 모인 시온 진영 자원병들에게 말씀과 연설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마치자, 선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형제들의 가르침에 교화되었다고 언급한 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어머니 무릎에 누인 아기보다도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여러분은 오늘 밤 이곳에서 겨우 몇 명의 신권 형제만 보고 계실 테지만,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입니다.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¹¹

브리검 영, 히버 시 김볼, 올슨 프렛, 윌포드 우드럽 등이 그날 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몇 해 후에는 선지자가 예언으로 전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힘을 보탤했습니다. 선지자를 주시하고 따르며 그에게 배울 수 있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범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밝힌 미래의 교회 성장에 관한 위풍당당한 비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가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며 보인 개인적인 모범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에이 스미스는 미주리 주로 행군하는 데 뒤따랐던 매일의 어려움에 선지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일지에 적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여정 내내 줄곧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진영을 돌보고 감리하는 일 외에도, 대부분 걸으면서 시간을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살아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주의
 깊게 받아들여 우리가
 주님 편에 있음을 보일
 때입니다.

보았다. 그의 발은 물집과 상처로 성한 데가 없었고, 통증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행군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반면, 진영에 속한 대다수 사람은 그에게 불만을 늘어놓았다. 발가락이 아프다, 발에 물집이 생겼다, 행군 거리가 너무 멀다, 먹을 것이 변변찮다, 빵이 안 좋다, 옥수수빵이 상했다, 버터에 곰팡이가 폼다, 꿀이 굳었다, 베이컨과 치즈에 구더기가 끼었다, 심지어 개가 짖는다 등등 불평할 것들은 많았다. 깨끗한 물이 없는 곳에서 야영을 해야 할 때면 거의 반란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시온 진영에 속하고도 기도하지 않고 사려 깊지 못하며 조심성 없고 부주의하며 어리석고 사악한 자가 우리 중에 많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조셉은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참을성 있게 우리를 대하고 가르쳐야 했다.”¹²

조셉은 엘마가 가르친 다음 원리를 강력한 모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을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니함이라. … 그들이 다 일하되 각 사람이 그 힘대로 일하였더라.”(엘마서 1:26)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이래, 세월의 흔적을 겪으시거나 피할 수 없는 육체적 한계 및 끝없는 고통과 직면하시는 몇몇 사도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며 배움을 얻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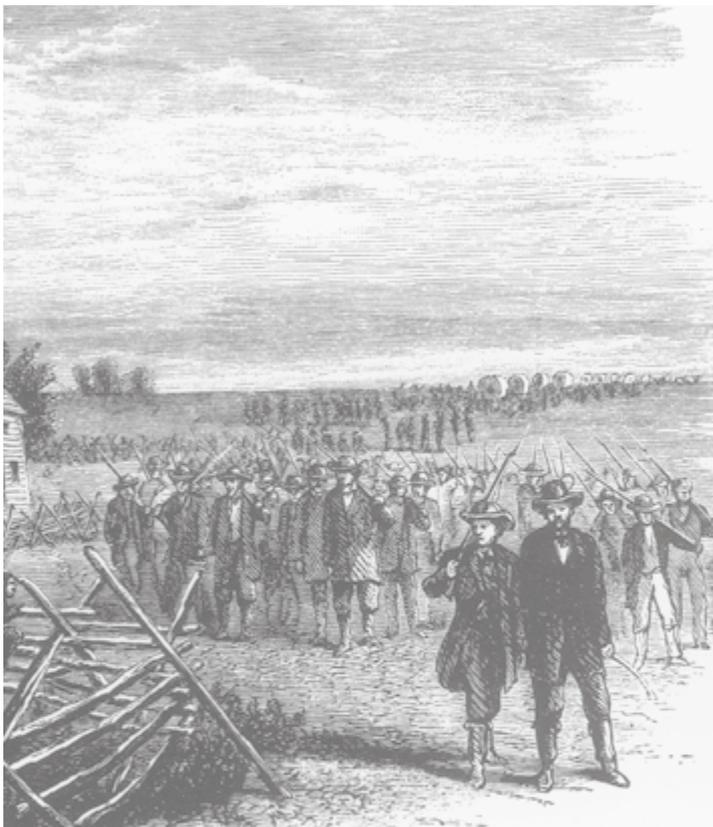
했습니다. 이분들이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공적으로 봉사하시는 동안 감내하는 은밀하고 조용한 고통을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님, 엘 톱 페리(1922~2015) 장로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과 함께 봉사하고 이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으셨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저는 분명하고도 권위 있게 외칠 힘이 생겼습니다. 용사라는 말이 주는 가장 참되고 존경 어린 의미를 담아서, 제가 함께 봉사하는 이 선임 지도자들은 고귀하고 위대한 영적인 용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인내와 끈기와 용기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셨습니다.(니파이후서 31:20) 우리는 이런 점을 닮아가야 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 세대에 점점 더 만연하는 집단적 시험을 한 가지 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란, 우리가 지적인 시대라고 부를 법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의 겸손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는, 영리한 사람이 많습니다. ... 그것은 꽤 혹독한 시험입니다.”¹³

지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받는 시험은 변명과 안락함을 누림으로써 받는 시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시하고 따르며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주님 편에 있”습니까? 지금은 이 후기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독하고 지시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듣고 주의 깊게 받아들여 우리가 주님 편에 있음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분]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그분]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보일 때입니다.(교리와 성약 1:38) 지금이 이를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나름의 시온 진영

우리는 모두 각자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나름의 시온 진영에서 행군하라는 권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 시기도, 여정 중에 마주치게 될 장애물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부르심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응답한다면, 궁극적으로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보일 때는 지금,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려냄, 준비에 관한 교훈을,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시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배우라는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를 기원합니다. ■

2010년 7월 30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전한 교육 주간 영적 모임 말씀, “누가 주님 편에 있는가? 지금이 보일 때라”에서 발췌.

주

1. Brigham Young, B.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370-71.
2. “Who’s on the Lord’s Side?” 영어 찬송가 260장.
3.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ed. G. Homer Durham (1946), 306.
4. “Who’s on the Lord’s Side?” 영어 찬송가 260장.
5. Joseph Smith, Joseph Young Sr.,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 (1878), 14; 또한 *History of the Church*, 2:182 참조.
6. Alexander L. Baugh, “From High Hopes to Despair: The Missouri Period, 1831-39,” *Ensign*, July 2001, 44 참조.
7. Ezra Taft Benson, “Our Obligation and Challenge,” Regional Representatives seminar, Sept. 30, 1977, 2-3; 미출간 원고.
8. Harold B. Lee, “Christmas address to Church employees,” Dec. 13, 1973, 4-5; 미출간 원고.
9. Wilford Woodruff, in Matthias F. Cowley,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1909), 39.
10. Wilford Woodruff,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305.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25~26쪽; 또한 Joseph Smith, quoted by Wilford Woodruff, Conference Report, Apr. 1898, 57 참조.
12. George A. Smith, “My Journal,” *Instructor*, May 1946, 217.
13. Harold B. Lee, “Sweet Are the Uses of Adversity,” *Instructor*, June 1965, 217.

경청하는 법을 배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다인종 지부

매트 맥브라이드, 제임스 골드버그
교회 역사부

선 여섯 살인 프랜스 레콰티는 스테이크 회장인 올레브 테임과 마주 앉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조금 전 테임 회장은 프랜스에게 그의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웨토에 교회의 지부를 세우면 어떨지 의견을 물은 터였다.

“왜 우십니까? 혹시 제가 기분을 상하게 했나요?” 테임



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강력한 인종 차별 정책으로 한 해변가가 백인만 갈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된 모습.

오른쪽: 195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일어난 저항 운동.

회장이 물었다.

프랜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면서 어떤 결정을 앞두고 백인이 제게 의견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인종 차별 정책 속에서의 삶

1981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정책으로 알려진 법 체제 아래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살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법적 분리 정책은 흑인 남성의 신권 성임을 제한하는 교회의 정책과 맞물려, 오랜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사회에서 교회가 변성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1978년에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신권 제한을 폐지하는 계시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지평이 열렸지만, 법적 분리 정책에 따른 어려움과 인종 간 불신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대다수는 흑인 거주구에 살았는데, 보통 이러한 지역은 요하네스버그같은 백인 거주 도시의 변두리에 있었다. 그중에서도 South Western Townships[남서부 흑인 거주구의 약어인 Soweto[소웨토]는 가장 규모가 큰 흑인 거주구였다. 백인이 흑인 거주구로 가는 일도, 흑인이 도시로 가서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일도 드문 일이었다.

소웨토에는 1970년대에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무리가 있었는데, 프랜스와 그의 가족도 그 일부였다. 처음에 그들은 요하네스버그 와드에 참석했다. 프랜스의 아들인 조나스는 가족과 함께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4시에 눈을 뜨던 때를 기억한다. 기차에서 내리면, 그들은 또 아침 9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에 도착하기 위해 먼 길을 걷곤 했다. 가족은 항상 이른 시각에 예배당에 도착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교회 교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가 끝날 때까지 좋지 않고 버티기가 힘든 때도 있었다. 인종 통합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사이가 모하피는 우연히 여섯 살 난 백인 소년이 교회에서 마주치는 흑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때를 기억한다. “솔직히 화가 났었어요.” 조사리아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러나 곧 그는 그 소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아 마빔벨라가 1991년 새로운 소웨토 지부 건물 기공식에 참석한 모습. (마빔벨라 자매의 이야기는 다음 기사를 참고한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란단.” 조사리아는 이 말에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웨토에 지부가 생긴다?

테임 회장은 흑인 회원들이 맞닥뜨린 물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웨토 회원들이 멀리 요하네스버그까지 여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웨토 지역에 지부를 여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요하네스버그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테임 회장은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프랜스 같은 소웨토 회원들을 접견해 보기로 했던 것이다. 소웨토 회원들의 답은 분명했다. “저희는 소웨토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테임 회장은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을 이끌어 줄 경험 있는 지도자들을 파악했다. 그는 요하네스버그에서 200명이 넘는 회원들을 접견한 뒤 최종적으로 40명에게 부름을 주었고, 그들을 새로운 소웨토 지부에 참석하게 하면서 그곳 현지의

사진: 포퍼/게티 이미지

지도자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흑인 회원들이 요하네스버그 와드에 참석하기 위해 도시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문화로 들어갔듯,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산 경험이 필요합니다.”

백인들도 소웨토에서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그 무렵 한 상호보조회 모임에서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가 개회 찬송으로 정해진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던 백인

회원 머린 벤 질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곧 알게 된 것은, 남아공 흑인들은 국가를 인종 차별 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국가를 개회 찬송으로 정하는 것은 여러 흑인 자매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흑인과 백인 회원 모두 이런 오해 때문에 쉽사리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는 대신 그런 상황을 토론과 발전의 장으로 삼았다. 머린은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흑인들은 어떤 점이 편치 않고 백인들은 어떤 점이 편치 않은지, 또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등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배우는 훌륭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웨토 지부가 강화되고 규모가 커지자, 다른 흑인 거주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콤블라니 메들레취라는 청년은 더반 근처 콰마슈 흑인 거주구에 살고 있었다. 그가 1980년도에 교회에 들어올 무렵,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던 흑인 청년 대부분이 그랬듯이 그도 백인들을 믿지 못했다. 그러나 다인종 지부에서 예배를 보면서, 그의 관점이 달라졌다.

사람과 사람을 묶는 끈

1982년, 콤블라니를 비롯하여 지부의 몇몇 청년들이 청년 대회에 초대받았다. 이 지부의 백인 지부 회장인 존 맨포드는 이 청년들이 최대한 멋지게 보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중에 좋은 옷을 가진 청년은 거의 없었다. 맨포드 지부 회장은 자신의 옷장에 있는 정장을 모두 꺼내서 지부의 청년들에게 주었고, 청년들은 그 옷을 입고 청년 대회에 참석했다. 다음 일요일, 맨포드 회장은 콤블라니에게 빌려주었던 그 옷을 다시 입고 교회로 왔다. 콤블라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입을 옷을 백인이 그대로 입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지부 회장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는 전과 다른 눈으로 백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 된 메들레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인종 차별 정책은 1994년에 막을 내렸다. 오늘날 많은



1994년에 채택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기는 인종 차별 정책 이후의 일치 단결을 상징한다. 흑색, 황색, 녹색은 아프리카 민족 회의를 상징하며, 적색, 백색, 청색은 보어 공화국을 상징한다.



회중들은 흑인이 주로 살거나 백인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모임을 갖지만, 자유가 확대되자 두 인종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이 늘게 되었다. 흑인 거주구에 생겼던 첫 번째 지부의 개척자들처럼, 배경이 다른 회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한다.

소웨토의 현 스테이크 회장인 타보 레베토아는 복음을 분열의 시기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끈으로 묘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치와 다른 사안 등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교회 교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토대 위에서 일하기에, 사람들은 주의깊게 협의하고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경청하는 동안 서로의 차이점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레베토아 회장은 “지도력의 핵심 중 하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해할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오. 느낄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오.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오.”

소웨토 지부의 초기 회원인 줄리아 마빔벨라의 딸 토바 칼 할라도 경청이야말로 부득이한 마찰이 괴로운 분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나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좌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토바는 말한다.

메들레취 장로는 오늘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닌 다양성에서 장점을 찾으라고 권고한다. 평의회와 같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도 다양색의 사람들을 탁자 둘레로 모으시고 여러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일하는 전 세계 지역 지도자들에게 계속하여 배경이 다른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요청한다. 과거의 세대가 자신을 지지해 주었듯 말이다. 메들레취 장로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조직을 조직할 때 유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이 경험을 쌓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비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고 함께 일하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서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것입니다.” ■

인용문은 2015년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발췌함.

사랑하는 조국을 치유하다: 줄리아 마빔벨라의 신앙

매튜 케이 하이스
교회 역사부

1955년에 남편 존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줄리아 마빔벨라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현장에서 백인 운전자 한 명이 존의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그 사람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도리어 백인 경찰관들은 흑인들이 워낙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것이니 사고의 책임은 존에게 있다고 말했다.¹

서른일곱 살 된 줄리아에게는 네 아이가 있었고, 그녀는 다섯째를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인종주의와 경찰, 사법제도 탓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터였다. 그러나 줄리아는 마침내 분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으며, 오히려 평생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통해서 스스로도 치유받고 사랑하는 조국도 치유하고자 노력했다. 줄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신앙의 원리대로 생활하려는 헌신 덕분이었다.

줄리아는 1917년 다섯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줄리아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세탁부와 가정부 일을 찾아다니며 홀로 다섯 자녀를 길렀다.

종교적인 여성이었던 줄리아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줄리아는 말했다. “어머니는 인생의 쓴



줄리아는 1946년에 존을 만나서 결혼했다.

약을 삼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죠.”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한 줄리아의 어머니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자녀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

줄리아는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은 뒤 학교에서 교사로 또 교장으로 일하다가 1946년에 존 마빔벨라를 만나서 결혼했다. 존은 식료품점과 정육점을 운영했다. 줄리아는 남편의 상점 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 인종 차별 정책이라는 규제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행복했다. 그러나 존이 세상을 뜨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줄리아는 남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

존 필립 코어리 마빔벨라를
추모하며
아내와 친지들이 쓰다
아직 마음의 응어리는 남았으나
그의 영이 편히 쉬게 하소서

줄리아는 네 번째 줄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문구를 쓸 때는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사고를 낸 사람과 거짓말을 한 경찰, 그리고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결론지은 법정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시지 않았으니까요.”² 줄리아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는 이 분노와 화를 이기는 것이었다.

남편이 사망한 직후 밤새 “잠을 설치던” 어느 날, 줄리아는 꿈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줄리아에게 작업복을 건네주며, “가서 일을 해요.”라고 말했다. 줄리아는 이 꿈의 결과를 이렇게 말했다. “해묵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지역 사회에 몸담는 것이었어요.”

이십 년이 지나고 1970년 중반이 되자, 전에는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던 흑인들이 난폭한 폭동을 일으켰다. 줄리아가 살던 소웨토도 폭동 발생 지역 중 한 곳이었다. 줄리아는 말했다. “우리가 알던 소웨토가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았죠.”

줄리아는 분노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 두려웠다. “남편이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고통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과



아래: 줄리아는 인종 차별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어린이들에게 “다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지역 공동 정원을 시작했다. 오른쪽: 전통 줄루 옷을 입은 줄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시절의 줄리아.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어린이들에게 흙에서 일하기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다 잃은 것은 아니야.” 줄리아는 두려움과 분노밖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준 지역 공동 정원을 만들었다.

그녀는 어린이들과 함께 지역 공동 정원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잔뜩 화가 난 땅을 파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 보자. 그리고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지켜보는 거야. ...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얻을 수 없단다.”

줄리아는 말했다. “저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땅이 부서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걸요.” 존이 세상을 떠나면서 줄리아에게 남겨진 분노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줄리아가 교회를 알게 된 것은 1981년이었다. 소웨토에는 심각하게 수리가 필요한 청소년 시설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이 이 시설을 찾아왔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이곳을 청소했다.³

어느 날 줄리아도 이 시설에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시설에 도착한 줄리아는 “백인 청년 두 명이 갈색 흙밭에서 삽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선교사들은 줄리아에게 집을 방문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될지 물었다. 사흘 뒤, 데이비드 맥콤스 장로와 조엘 히튼 장로가 선교사 복장에 명찰을

달고 찾아왔다.

줄리아는 처음 두 번의 토론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다”고 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방문하던 날, 선교사들이 벽에 걸린 줄리아와 존의 사진에 대해 물었다. 줄리아의 남편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들은 선교사들은 구원의 계획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줄리아는 말했다.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들었어요. ... 선교사들이 영원한 관계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부모님과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줄리아는 다섯 달 뒤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고 한 달쯤 지나, 줄리아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제가 연단으로 걸어가자 대부분 무척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다들 흑인이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마 흑인이 청중을 향해 말씀하는 것 자체를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줄리아는 영감을 받아, 남편의 죽음과 오랫동안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함께 “마침내 진정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준 교회를 찾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종 차별 정책은 1994년에

폐지되었지만, 줄리아가 벌인 오해와 편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런드 장로는 201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줄리아와 토바 모녀가 “백인 회원들에게서 다소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던 일을 언급했다. 토바는 그렇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쉽게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될 법도 했던 이 일은 정말 값진 가르침의 순간이 되었다. 줄리아는 이렇게 답했다. “토바, 교회는 마치 큰 병원과 같단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온단다.”⁴

줄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뿐 아니라 조국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전에서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다르게 보지 않아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시투어나 줄루어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같아요. 모두가 동등하고 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죠.”

줄리아 마빔벨라는 2000년 7월 16일에 별세했다. ■

주

1. 별도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문은 Laura Harper, “Mother of Soweto: Julia Mavimbela, Apartheid Peace-Maker and Latter-day Saint,” unpublished manuscript,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에서 발췌함.
2. 하피의 글에서는 lump[응어리]가 아닌 lamp로 쓰였다. 그러나 토바의 확인에 따르면, 묘비에 쓰인 말은 lump임이 분명하다.
3. David Lawrence McCombs, interview with author, Aug. 25, 2015에서 발췌.
4. 데일 지 렌런드,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57쪽.

데시데리아 야네즈: 여성 개척자

클린턴 디 크리스텐슨
교회 역사부

멕시코 출신의 이 초기 후기 성도는 꿈을 통해 회복된 복음으로 인도된 후 교회의 충실한 개척자가 되었다.

18 80년 초의 어느 날 밤, 데시데리아 야네즈는 선인장이 즐비한 멕시코 노팔라 언덕의 푸근한 푸에블로(흙과 벽돌로 지은 인디언 집, 역사 주)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꿈에서 그녀는 Voz de Amonestación(경고의 음성)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보았는데, 그것은 훗날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영적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잠에서 깬 그녀는 그 소책자를 발행한 사람들이 멕시코시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 그 도시까지 120km나 여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육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꿈에서 받았던 느낌을 좇기로 결심했다.

가족의 신앙

데시데리아는 아들 호세에게 자기가 꾸는 꿈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믿었고 어머니 대신 멕시코시티로 향했다. 그는 애타게 사람들에게 물어 가며 마침내 플로티노 로다카나티라는 교회 회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호세에게 산 카를로스 호텔로 가 보라고 했다.²

그 호텔에서 호세는 제임스 지 스튜어트가 팔리 피 프랫이 만든 Voz de Amonestación의 인쇄 전 교정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데시데리아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소책자였다. 호세가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하자, 스튜어트 장로는 Voz de Amonestación 소책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교회의 다른 소책자를 몇 부 건네주었다. 그리고 스튜어트 장로는 꿈에 얽힌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신의 일지에 기록했다.³

호세는 먼지투성이의 먼 길을 걸어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데시데리아는 소책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꿈에 확신이 생겼다. 호세가 가져온 소책자를 꼼꼼히 읽은 그녀는 그 안에 담긴 기초적인 복음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침례 받기를 열망했다.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다

스튜어트 장로는 여전히 Voz de



Amonestación 소책자의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기에, 스페인 출신의 멜리톤 트레호 장로가 데시테리아와 호세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다. 1880년 4월 22일, 트레호 장로는 데시테리아 퀸타나르 데 야네즈, 호세 마리아 야네즈, 그리고 호세의 딸 카르멘에게 침례를 주었다. 데시테리아는 멕시코 선교부의 스물두 번째 침례자였고 멕시코 중부에서 침례 받은 첫 번째 여성이었다.⁴

그달 말에 호세는 다시 멕시코시터를 방문하여 완성된 Voz de Amonestación 10부를 집으로 가져왔다. 마침내 데시테리아는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그 소책자를 보게 되었다. 그 소책자는 주님께서 데시테리아 한 개인에게 손을 내미셔서 회복된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보여 주는 물증이였다.

최초의 스페인어 물몬경

72세가 된 데시테리아는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1886년까지 데시테리아는 노팔라 근처에 위치한 산 로렌초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꼼짝도 못 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 끔찍하게도 도둑이 들어 그녀를 폭행하고 삼천 달러를 들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⁵ 하지만 데시테리아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낙담하는 대신 신앙으로 주님의 도움을 기다렸다. 주님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꿈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1886년 10월, 예기치 않게 십이사도 한 분과 선교부 회장 두 분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다. 호세 야네즈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했다. 형제들은 바로 데시테리아의 집을 찾아갔다. 데시테리아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를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스노우 장로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신권 축복을 주었다.

그렇게 방문을 받는 동안, 호레이스 커밍즈 신임 선교부 회장은 중요한 소식 한 가지를 전했고, 데시테리아는 무척 놀랐다. 스페인어 물몬경의 첫 번째 완역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었다. 즉시 데시테리아는 경전이 나오면 한 권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달 후, 커밍즈 회장은 경전을 가지고 다시 데시테리아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병약한 야네즈 자매를 방문하여 내가 유타 주로 보냈던 미제본 물몬경 한 권을 주었다. 멕시코에서는 처음 받게 되는 스페인어 물몬경이었다. … 그녀는 그 책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는 것 같았다.”⁶ 그 방문은 데시테리아의 생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선교사 방문이 되었다.

먼 곳에 떨어져 있었으나 잊히지는 않았다

회복된 복음이 멕시코 중부에 들어온 지 불과 10년 후인 1889년, 교회 지도자들은 멕시코 북부에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정된 교회 자원을 북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서 약 1,600km 떨어진 멕시코시티 근처의 회원들은 선교사들이 북쪽으로 떠나자 목자를 잃은 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데시테리아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고 분리된 상황 속에서 복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은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호부조회에 가입하거나 성전 축복을 받는 유익을 결코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분의 종을 통해 모든 양에게 성역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다. 꿈, 신권 축복, 그리고 몰몬경 덕에, 데시테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적 및 현세적 필요를 돌보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간증할 수 있었다. 비록 이런 지식이 그녀의 삶에서 시련과 역경을 막아 준 것은 아니었으나, 주님께서 항상 그녀의 짐을 덜어 주시리라는 확신은 분명히 밝혀 주었다.

영원히 지켜 나갈 유산

1903년이 되자, 1886년 이후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멕시코 남부로 돌아왔다. 그들이 호세를 만났을 때, 그는 아내와 그의 어머니가 “몰몬교를 믿는 온전한 신앙 안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자신도 “몰몬교 안에서 생을 다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어머니였던 데시테리아가 남긴 신앙의 유산과 ‘끝까지 견딜’의 모범이 녹아 있었다.⁷

데시테리아는 꿈을 꾸고 나서 복음의 길에 들어섰으며, 교회의 라틴계 여성 개척자가 되었다. 1880년 한 편의 꿈에서 시작된 신앙의 씨앗은 유실되지 않았으며, 데시테리아가 침례 성약을 맺고 신앙으로 시련을 견뎌 내는 과정에서 그 싹을 틔웠다. 데시테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교회에서 따로 떨어진

채로 복음 생활을 해야 했기에 영적으로 약해지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비록 외지고 외딴 곳에 있을지라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보셨음을 알았다.

집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신앙과 부지런함, 순종, 그리고 인내심의 모범이 되었다. 그것은 비단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개척자 정신을 이어 가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

주

1. Alonzo L. Taylor Mission Papers, July 10, 1903, and Mexican Mission Manuscript History and Historical Reports, July 7, 1903,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참조.
2. Taylor Mission Papers, July 10, 1903, and James Z. Stewart Papers, Feb. 17, 1880,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3. Stewart Papers, Feb. 17, 1880 참조.
4. Moses Thatcher, Journal, Nov. 20, 1879, and Stewart Papers, Apr. 26 and June 20, 1880,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데시테리아는 1879년 멕시코시티에 멕시코 선교부가 개설된 후 처음으로 침례받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1877년 에르모시요 북부 도시에서 행했던 짧은 선교 사업의 결과로 인근 마을에서 5명의 침례가 있었다. 그중에는 첫 멕시코 여성 개종자로 알려진 마리아 라 크루즈 파로스도 있었다. 모세 대처가 작성한 공식 멕시코 선교 기록에는 데시테리아 야네즈가 첫 번째 여성 개종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두 번째 여성 개종자였다. 또한 Louis Garff Reminiscences, undated,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5. Horace H. Cummings Papers, Oct. 24, 1886,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6. Cummings Papers, Nov. 29, 1886.
7. Taylor Mission Papers, July 10, 1903.





하나님과 협력하여 아들 양육하기

캐미 크룩스턴

나는 항상 말쑥하게 차려입은 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 완벽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것을 상상해 왔다. 내가 꿈꾸던 모습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축복들은 지지분한 집과 코를 훌쩍거리리는 아이들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아들 브래드를 키우면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브래드는 다른 아이와 마찬가지로 순진무구한 상태로 이 세상에 왔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브래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브래드는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남편이나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아반에 들어갈 수 없었다. 브래드가 나이를 먹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서는 끊임없이 아이를 통제해야 했다. 도움을 구하며 들은 말은, 더욱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온라인으로 검색도 해 보았고, 양육 지침서들을 읽었으며, 의사와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마침내 학교에 입학한 브래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라는 증상과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아이로 진단받게 되었다.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이제 진단을 받았으니 치료 계획을 세워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약물치료가 브래드에게도 잘 듣게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브래드는 약물치료를 받고서 그 전보다 증상이 심해져서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다.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브래드가 여섯 살이던 어느 날, 브래드는 여느 때와 같이 심하게 감정을 터뜨리고 있었다.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해서 방으로 들어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곧 아이를 재울 시간이었기에 나는 그때까지 무사히 할 일을 마치고 아이를 재울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자,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닥친 시련을 더 잘 극복해 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올랐다.



우리 부부는
도움이 될
자료를 많이도
연구하고
찾아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잊고
있었다.

어떻게 매일같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내 인내심의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셨을까? 그분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 짐을 없애 주시고 내 아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을 주셨어야 했다. 내가 마주친 시련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는 것만 같자, 이런 생각과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시련의 진정한 본질

나는 내가 시련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용광로에서 구워지는 도자기처럼 시련을 이겨 내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음 번 단련과 뜨거운 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삶이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련을 너무나 오래 겪어 왔으며, 시련은 사라지지 않았다. 점점 부담이 커졌고, 나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에 기도로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나자, 위로와 이해를 얻기 위해 내가 가야 할 곳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이생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며, 그 시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감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였다.

나 자신이 딱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마음이 나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가장 먼저,

‘이건 불공평해’, ‘난 할 수 없어’, ‘왜 브래드는 평범해질 수 없는 걸까’, ‘나는 형편없는 엄마야’ 등 마음속에 스며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기로 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자, 더욱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도 않았어. 정말 잘했어!’라고 스스로 칭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특별히 힘든 하루를 보낸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이 나를 축복하는 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며, 그분은 나와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시고,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브래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와 남편은 브래드를 위해 하나님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이러한 협력 관계 덕분에 얻을 수 있는 도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부부는 도움이 될 자료를 많이도 연구하고 찾아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에는 잊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브래드를 도울 수 있을지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때면, 무작정 다가가지 않고 먼저 영감을 구하며 짧게 기도드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아들에 관한 영감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의지하자, 내가 아들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또한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후 하나님께 손에 든 도구가 되어.”라고 했던 엘마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다.(엘마서 29:9)

곧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브래드를 도울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이 떠올랐다. 나는 가정의 밤을 도구로 사용했고, 무엇을 가르칠지 알고자 기도했다. 또한, 더욱 전념하여 경전을 읽었고, 경전에서 양육에 대한 훌륭한 권고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음이 큰 희망과 위로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분께서 주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자,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다.
양육에 대해 내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다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더 강하고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여전히 힘든
날은 있지만, 어디서 도움을 얻을지
나는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지만, 영원한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소소한 순간에 누리는 기쁨

나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소소한
순간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시간을
내는 법을 배웠다.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내게 입을 맞춰 줄 때, 나는 정말 감사하다.
아들이 버스에 타면 그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하게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나는 브래드가 혼자가 아니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지켜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있기에, 나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축복과 주님의 도움이
있기에,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무릴로가 열여섯 살에 침례를 받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반대했다. 그가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을 때, 그의 부모는 그의 안식일 복장을 모두 태워 버리고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나중에 그의 가족들은 무릴로를 통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으나, 무릴로는 여전히 선교사로 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코디 벨, 사진작가

무릴로 비센테 레이치 리베이로

브라질 고아아니아

무릴로와 켈리 리베이로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 딸이 노래를 하고, 무릴로와 그의 아들은 기타 반주를 한다.

리베이로 가족은 매일 가족 기도를 할 때 오는 힘을 느낀다.

켈리는 딸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하도록 돕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일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릴로는 말한다. 비록 선교사로 봉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스테이크 회장으로서는 젊은 형제와 자매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돕고 있다.

무릴로가 그의 가족들에게 물몬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생명 나무의 시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무릴로와 켈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무릴로의 부모는 교회에 적대적이었다. 그들은 무릴로가 교회에 들어가면 가족을 잃고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저는 가족들이 저와 함께 교회에 가길 바랐어요.” 그는 말한다. 무릴로는 자신의 가족이 복음과 가까이 생활하기를 바란다.

참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교 사업을 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이와 비슷한 불편함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그들은 무릴로가 그랬듯이 충실하게 남도록 격려받는다. 그들은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죄책감을 벗어 버리고, 교회 부름에서 봉사함으로써 축복을 받으며,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무릴로에 관하여 [리아호나 온라인 버전\(lds.org/go/71738\)](https://www.lds.org/go/71738)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나는 지프니 운전을 시작했고 판매원으로 일하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면서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했다.

빈털터리의 충실한 신앙

필리핀 카가얀 데 오로 선교부에서 봉사한 뒤, 나는 성전에서 결혼하라는 선지자와 사도의 권고를 따라야겠다고 결심했다. 대부분 비회원인 내 친척들과 친구들은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대학 학위를 따든지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일부 교회 회원들까지도 그렇게 말했다. 약혼 당시 나는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다.

신경이 쓰였지만,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님이 영국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과 우려 속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출발 직전에, 그의 부친은 그에게 다음 네 마디가 쓰인 카드를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 나는 감동담이 주신 말씀도 떠올렸다.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주었다.

나는 빈털터리였지만 사랑스러운 약혼녀와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결혼했다. 얼마 안 가 나는 일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 이 일을 오래 하지는 않았다.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지만, 나는 밀고 나가며, 스스로 이 말을 되뇌었다.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나는 지프니(원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남겨진 미군용 지프를 개조하여 만든 것이었으나 현재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필리핀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역자 주) 운전을 시작했고 판매원으로 일하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었다. 아내는 내가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느라 녹초가 된 것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다시 공부하라고 했지만, 일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학교도 다니려면 힘들 것 같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그렇게 해 보니 그 생활은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때때로 돈이 모자랐지만, 교회의 영구 교육 기금 덕에 나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직을 구했고 나중에는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나는 결혼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과 복음 덕에 나는 축복을 받았다.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다음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

리처드 오 에스피노자, 필리핀 타를라크 시

유산 후에 받은 위안

네 번째 아이를 가진 지 18주 차에 접어들 무렵, 갑자기 가벼운 출혈이 느껴졌다. 출혈이 멈추지 않자 불안해진 나는 응급실에 가기로 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먼 길을 운전하는 동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아무리 나빠도 누워서 며칠 쉬라는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다.

병원에 입원하자, 의료진이 몇 가지 검사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다. “태아 사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 시점에서 더는 할 일이 없었던 의사는 나를 퇴원시켰다.

나는 슬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서둘러 성전에 가서 이른 아침에 있는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의식이 거의 끝나 갈 무렵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내 약지에 끼워진 결혼반지와 약혼반지였다. 그것들은 나와 이름이 같은 내 증조할머니의 물건이었다. 증조할머니는 내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부터 나는 할머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던 참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이십 대에 여러 번 유산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오전 내내 슬픔과 두려움으로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아 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 순간 평화로운

느낌이 밀려왔다. 위안이 느껴졌다. 증조할머니는 살면서 나와 비슷한 시련을 겪으셨고, 구주께서는 할머니를 도와주셨다. 나 역시 그분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엘마서 7:12).

나는 성전에 참석하면서 얻은 평안, 충실한 조상들의 유산,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 ■

에밀리 밀러, 미국 텍사스 주

내 결혼반지와 약혼반지는 증조할머니의 물건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여러 번 유산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차에서 복음을 나누던 날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영국의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가다 보니, 길가에 한 노부인이 보였다. 차를 멈추고 혹시 차를 태워 드릴 필요가 있는지를 여쭙볼까 얼른 결정해야 했다.

그때 멈춰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인은 자신은 메리라고 하며, 막 그 길가에 나온 참이라고 했다. 부인이 몇 초 더 늦게 왔거나 내가 몇 초 더 일찍 지나갔더라면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했을 터였다. 때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행선지를 들어 보니, 예배당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교회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부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구주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후기 성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가는 길에 나는 부인과 복음을 나눴다.

메리를 차에서 내려 주면서, 교회가 끝나면 다시 차를 태워 주겠다고 말했다. 부인은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교회로 들어간 나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내 새 친구에게 줄 물문경 한 부를 달라고 부탁했다. 나중에 부인이 예배당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그녀를 친절히 대하며 간증을 나누어 주었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메리에게 물문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구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도 알려 주었다. 후기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분명 부인은 뭔가를 느낀 것

같았다. 메리는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곳에서 내렸다. 다시 그녀를 보게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다음 날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보통은 가지 않는 우회도로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나는 다시 메리와 마주쳤다. 부인은 나를 보자 활짝 웃었다. 다시 그녀를 차에 태워 줄 수 있게 되어 기뻐다.

그 후로 다시 메리를 본 적은 없지만, 이 경험을 떠올릴 때면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주셨던 것에 매우 감사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때를 선사하심을 나는 알고 있다. ■

마이클 커랜, 영국 글로스터

부인이 몇 초 더 늦게 왔거나 내가 몇 초 더 일찍 지나갔더라면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했을 터였다.



우리 집에 빛을 가져다준 천사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정 복음 교사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왔다. 얼마 전 이혼을 겪은 나는 홀로 두 어린아이를 길러야 하는 낯선 상황과 마주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방문해 준다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당시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화가 나 있었고, 이 힘든 일은 그저 모두 내 몫일 뿐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한 주가 지나고, 친절한 두 형제님이 집에 찾아오셨다. 집에 들어오신 형제님들은 일반적인 것들을 질문하였고, 우리 가족에게 짧은 복음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다.

그런 뒤 이 친절한 형제님들이 물으셨다. “네레이다 자매님, 우리가 자매님을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오래 생각할 틈도 없이, 나는 이 층으로 가는 계단 쪽 전구들이 나갔다고 말했다. 교체할 전구는 있었지만, 내가 갈기에는 위치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계단 위에 사다리를 놓는 것도 불안했다. 뒤뜰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렸다.

형제님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셨다. 한 분이 차로 가시더니 공구 상자를 가지고 돌아오셨다. 그분은 190cm에 가까운 장신이라 계단에서 거뜬히 전등을 교체해 주셨다. 그 사이에 뒤뜰로 가신 또 한 분은 전선이 반대로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년 동안 내 가정 복음 교사들이 보여 주신 친절과

사랑, 헌신이 담긴 단순한 행위들과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훌륭한 가르침에 정말 감사드린다. 내 가정 복음 교사들은 정말 천사와 같았다. 그분들은 우리 집에 빛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둠도 몰아낼 빛을 부르는 평화와 희망, 그리고 복음이 주는 안전함까지 가져다주셨다. ■

네레이다 산타페, 베네수엘라 그란 카라카스



나를 구한

유일한 것

수호 다카야마가 애나 리사 클라크 멀린에게 들려준 이야기

골 프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열네 살에 골프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골프에 재미를 느꼈던 나는 결국 혼자서도 연습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팀 일원으로 경기를 했다. 나는 팀원과 코치들과도 친해졌다. 그들은 프로골프 선수의 꿈을 이루라고 나를 격려해 주곤 했다.

나는 경기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충실하여 거의 일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런 뒤 대학에 입학했고, 처음에는 골프 코치를 비롯해서 팀원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모두 나보다 실력이 좋았으므로 나는 그들만큼 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던 중 몇몇 팀원이 수호라는 독특한 내 이름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한국인이신 외할머니가 내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한국말로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때 이후로 나를

생각지도 못했던
친분으로 내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몇 세대 동안 이어진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반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한국 꼬마”라고 부르며 내가 학교 명성에 먹칠할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골프 연습에 끼워 주는 대신,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팀과 어울리는 일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나는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코치와 팀원들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자 더는

그들의 모진 처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내게는 암흑 같은 시간이었다.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을 갇아먹고 있었고, 그 2년 동안 자존감은 바닥이었다. 프로골프선수가 되리라던 꿈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내 삶은 방향을 잃고 말았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코치나 팀원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에게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품은

생각에 겁이 날 정도였다. 친구들도 없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할 것만 같았다. 여섯 달 동안 체육관에 갈 때를 빼면 집밖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인생에서 이렇게 암울했던 시기에, 나는 체육관에서 저스틴 크리스티를 만났고, 그와 친구가 되었다. 맨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그가 외국 교환학생이려니 했다. 그가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때까지는 말 걸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가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던 차였지만, 그는 내게 같이 운동을 하자고 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크리스티에게는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었다. 점차 그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친구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함께 운동한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스틴은 자신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저녁 식사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권유에 나는 결국, 리처드와 코리나 클락의 집에서 열린 청년 독신 성인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 집에 들어서자, 클락 형제님은 일어로, 자매님은 영어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자매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나는 성의껏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일본어를 못했지만, 모두 따뜻하고 다정하고 유쾌한 이들이었다. 그곳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다른 청년 독신 성인 활동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는데, 살면서 다른 이들과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낸 건 처음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이유가 궁금했다.

이즈음 저스틴은 내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에 내심 놀랐다. 나는 영어를 배워 저스틴처럼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저스틴은 자기 교회에 무료

**나는 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 수업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영어 수업에 참석하였고 선교사들을 만났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들은 나에게 기초적인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거의 매일 전화를 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때까지 친구가 별로 없었던 나는 선교사들 덕에 정말 행복해졌다.

그리고 선교사 토론을 도와주러 오는 교회 회원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과도 아주 친해졌다. 그들은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모범이 되어 주었다. 저스틴은 몰몬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스스로 몰몬경을 읽고 싶어 하도록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싱오라는 아주 꼼꼼한 친구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교리에 관한 토론을 함께 해주었다. 그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늘 간증을 전했다.

비로소 내 믿음이 머물 곳,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곳을 찾았다. 침례와 확인을 받고 나자,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에 2년을 바치는 것이 걱정되었다. 선교 사업에 대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귀환 선교사 친구들과 그랬다. 수없이 생각해 본 끝에 복음이야말로 나를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게 꿈, 희망, 친구, 특히 사랑까지, 모든 것을 주셨다. 복음 덕분에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 ■

글쓴이는 일본 도쿄에 산다.



본이 됨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지상에 왔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보여 주신

삶과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그 빛은 우리 안에서 타올라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만한 곳에는 분명 외롭거나 아프거나 낙담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들을 돕고 기운을 북돋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6쪽



내가 수호에게 복음을 나눈 방법

저스틴 크리스티

체 육관에서 수호를 만났을 때, 그는 영어를 배워 골프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수호에게 교회 영어 수업을 알려 주었지만, 같이 참석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다. 그사이 함께 운동하면서, 우리는 복음 주제에 관해, 물몬경에 관해,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 관해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수호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배우게 된 데에는 그가 만난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우정과 모범이 도움이 되었다. 개종으로 이끄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지지해 주는 것이다.

복음을 나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느끼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때가 왔을 때 입을 열기만 하면 선교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사람들을 교회 활동이나 모임에 초대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복음을 나눌 기회가 생길 것이다. ■

가장 중요한 배역

애니 매코믹 보니

연극은 내가
열정을
다 바치는

일이었다! 청년 성인이었던
나는 무대에서 펼치는

연기와 노래에 푹 빠져
있었다. 축복받은 재능도

있었기에 나는 전문적인 연기
활동으로 경력을 쌓아 가고 싶었다.

나는 가능한 한 제일 까다로운 역할을
얻었고, 동료 배우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프로같이 행동했다.

그러던 중, 지역 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연출자가 오페레타(대개 무용을
포함하는 희극적인 주제의 짧은
오페라, 역자 주) 오디션을 계획 중인데
오디션에 한번 나와 보라고 했다. 나는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 공연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연출자가 주연으로
이미 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오디션 전에 대본을 미리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 오페레타의 바탕이
된 18세기 철학가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다. 게다가 매우 아름답고도

까다로운 그 오페레타의 음악도 잘 알고
있었다.

오디션은 순조롭게 끝이 났고 곧 나는
극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 주연을 맡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역할은
어마어마한 기회였다.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다.
대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대본을 읽는 동안,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소설과 음악은
훌륭했지만, 대본은 지속했다. 게다가
지문에는 외설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작품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연극계의
관례대로라면 배역을 수락한 뒤에는
그만둘 수 없다. 딱딱한 제작 일정 탓에
배역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두겠다고 하면 굉장히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질 참이었다. 나는
극단의 신뢰를 잃고, 연출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도
계속 공연할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웠다.

물론 합리화하려는 유혹이 일기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역이
들어왔다. 나는
정말 신이 났었다.
대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했다! 마음속에 버젓이 유혹의 음성이
파고들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안 되지. 대본이 그리 썩 나쁜 것도
아니잖아. 그렇고 그런 장면들이야
공연에서 나오는 근사한 부분들로 잘
덮으면 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엔 늘
성신의 울림이 있었다. 그 오페레타에서
나와야 한다는 단호하고도 끈기 있고
확고한 느낌이 씬 없이 밀려왔다.

뭘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나는
떨면서 전화를 들어 연출자의 번호를
눌렀다.

그가 전화를 받자, “여보세요? 연출자님,” 하고 말문을 열었다. “저 아니에요.”

“애니! 공연 때문에 정말 흥분되는군. 대본은 받았나?”

“네, 받았어요. ... 그런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프로답지 못하게 이게 무슨 일일까!

나는 훌쩍이면서 그의 공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찌어찌 연출자에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처럼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 친절하신 분은 웃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처음에는 공연을 같이하자며 나를 설득하려 하기도 했지만, 이내 내 결정을 받아들여 주었다. 또 내가 자기 오페레타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아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테니 대본만 바로 갖다 달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을 보인 것이 멧쩍긴 했지만 다정하고 너그러운 연출자의 대답이 고마웠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는 대본을 집어 들고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거니,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디오는 지역 클래식 음악 채널에 미리 맞춰져 있었다. 신기하게도 마침 흘러나오는 연주곡은 바로 그 오페레타의 전주곡이었다. 나는 라디오에서 그 곡이 나오는 걸 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그 음악을 틀어 주신 것만 같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결정에 찬성한다고

내게 알려 주려 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하나님이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자비였다. 이 일로 나는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 위안을 느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해서 연극을 전공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몇 번이나 생겼다. 어떤 합동 공연에서는 부적절한 내용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는 일도 생기곤 했다. 이런 상황들이 결코 간단하거나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고도 훨씬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맨 처음에 했던 그 경험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일로 나는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글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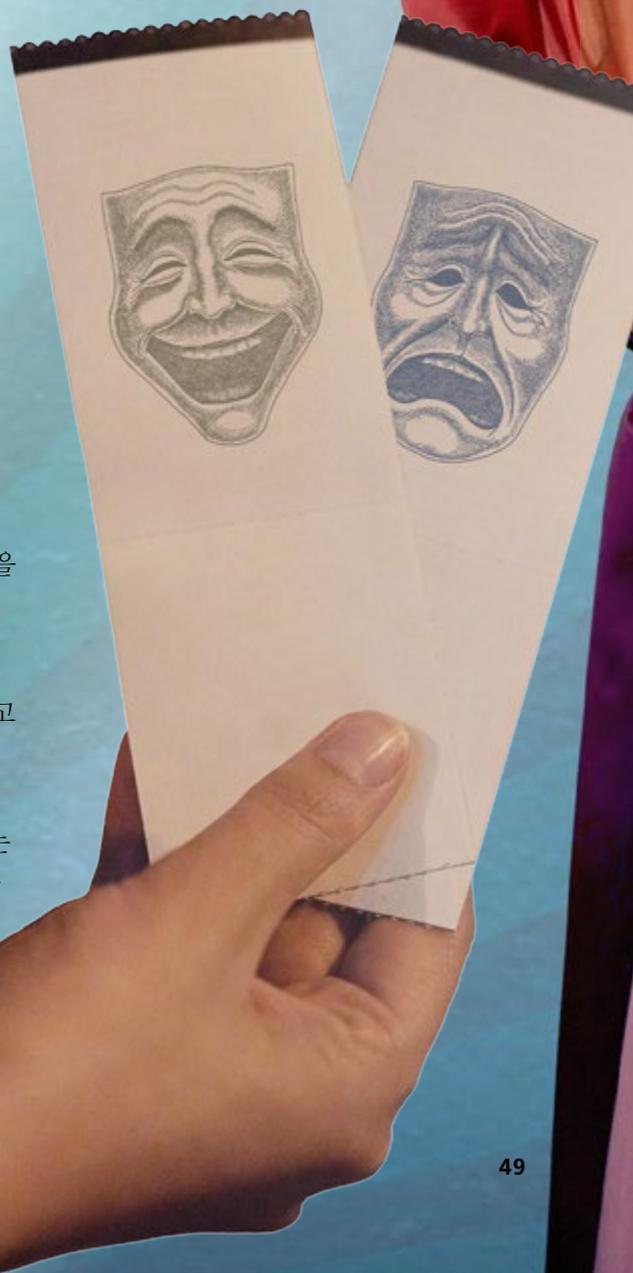
모든 세상이 무대요,
모든 남녀는 그저 배우일 뿐이니,
등장도 하고 퇴장도 하리라.
무릇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배역을
맡는 법이다.¹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배역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배역이다. 이 지상 생활을 같이 걷는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도 신나고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인정이다. 우리가 펼치는

가장 멋진 공연은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펼쳐진다. ■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 주에 산다.

주
1. 윌리엄 셰익스피어, *As You Like It*, 2막 7장, 141-44행.



이것이 내내
클루즈를

본격하게 생활하기





청소년들이 성찬을 취하고 한 주 내내
자신이 맺은 성약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관해 이야기한다.

일 요일 밤이다. 그 말은 내일이 월요일이고, 과제물, 축구 연습, 피아노 학원 등등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말이다. 틀림없이 이번 주에도 할 일이 태산이다! 그래도 괜찮다. 이번 주에도 길게 열거된 할 일 목록을 다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이 뭐냐고?

여러분한테는 영적인 힘이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은 성찬을 취하며 예전에 맺은 성약을 새로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항상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이 말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무슨 일에 맞닥뜨리든지 영적으로 강해졌다고 느끼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청소년 몇 명에게 성찬과 관련된 경험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고 일주일 내내 성약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배경 그림과 위 사진: 게티이미지



늘 구주를 기억하면 힘든 시련을 마주해서도 용기가 생겨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였어요. 가족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만 학년을 마칠 때까지 혼자 호주에 남아 있게 되었어요. 방학 때 가족을 방문하고 혼자 호주로 돌아오는데, 정말이지, 너무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구주를 따르려고 노력하면 그분의 영이 언제나 함께할 테니까요. 그게 그때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새년 에스, 19세, 호주 시드니



우리 학교에 장애를 지닌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가 장애를 구실 삼아 그 애를 놀리곤 했죠. 저와 제 친구만 그 아이를 도우려 했어요. 어떤 날은 학급 전체가 그 아이를 따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 상황을 그냥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성신의 영향으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기억났어요.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리라는 걸 알았죠.

저는 침례 성약을 맺으면서 제가 구주처럼 행동하면 언제나 성신과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성신에게서 느껴지는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해요.

알렉시스 엘, 13세, 미국 캔자스 주



성찬 기도를 들으면서, 침례 성약 중에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면 영이 저와 함께하리라는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영을 가까이하면 한 주가 훨씬 수월해져요. 실례로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욕설을 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성약을 떠올리면 그런 말이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제이컵 비, 14세, 미국 콜로라도 주



제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말은 그분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함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한번은 생일 파티에서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제게도 알콜음료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 친구 하나가 오더니, 그 친구들에게 우리는 종교 때문에 알콜음료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주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영이 함께하며 부정적인 것들은 멀어집니다.

미구엘 씨, 16세, 브라질 파라나

예전에 저는 성찬식 시간 동안 주중에 할 일이나, 학교 일이나 친구들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공과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시며 모든 것을 건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매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요. 이를테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그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신 똑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도 있고, 성전에 들어가고 성찬을 취하는 데 더욱 합당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알렉산드라 비, 17세, 칠레 산티아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기로 성약을 맺은 사실을 인지하면 그분을 따라야겠다는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건 아니지요. 한번은 단체 활동 시간에 말을 걸 친구가 없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말을 건네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먼저 다가가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떠올려 보니 새 친구를 사귄 용기가 생겼어요. 그 아이와 이야기하는데, 이것저것 물어가며 재밌게 어울려 보라는 영의 속삭임이 느껴졌습니다.

에번 에이, 16세, 미국 유타 주

성찬을 들면 삶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평안한 느낌이 듭니다. 작년 6월, 저는 제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사를 해서 제 곁을 떠났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제 신체에 대한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성찬을 들고 있는데 평안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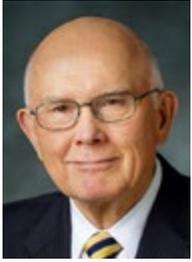
올리비아 티, 14세, 미국 버지니아 주

성찬식은 한 주를 버틸 영적인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제가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주며, 그것은 일주일 내내 저를 인도해 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해 주고 다가올 한 주를 위해 저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언젠가 스트레스를 받아 절망감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성찬을 취하고 성찬 찬송을 부르면서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구주께 집중했습니다.

브렛 비, 17세, 미국 콜로라도 주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간증을 얻는 법

어떤 지식이든 그것을 얻는 첫째 단계는 진실로 알고자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에서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계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2:61)

엘마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라.”(엘마서 5:46)

우리가 소망하고 구할 때, 우리는 간증을 얻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간증을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지식을 얻는 방법과 비교할 때 놀랍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나눔으로써 그것을 얻거나 강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간증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보다 일어서서 간증을 나눌 때 그것을 더 잘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은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간증을 얻고,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는 “항상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교리와 성약 20:77) 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에 합당하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59:9 참조) 물론, 그 영은 우리 간증의 근원입니다. ■

200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경전을 읽으며 생겼습니다. 자신만의 간증을 얻으면,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듣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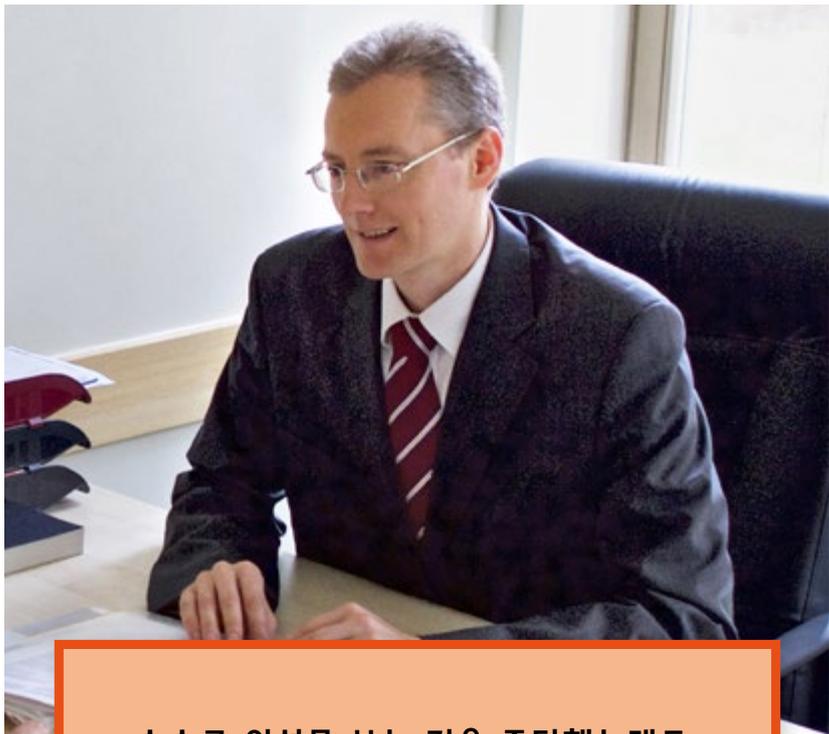
새년 무리엘 엠., 미국 콜로라도

해답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도 죄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64:9~11 참조) 하지만 그것이 죄를 용인하라는 뜻은 아니다. 만약 주변에 죄가 되는 행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 옳은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 죄에 관여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무리와 얽히지 않음으로써 좋은 본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나쁜 행동을 지적해야 하는가?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상황, 죄와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그들의 지식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개를 권유할 때, 얼굴만 겨우 아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친구에게 일대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성신의 영감을 구하라. 성신은 여러분이 사랑과 관용, 그리고 주님의 표준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인도할 수 있다. ■



스스로 외설물 보는 것을 중단했는데도, 여전히 감독님과 이야기해야 할까요?

외설물을 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필요한 도움을 구하십시오. 부모님과 감독님은 회개에 필요한 단계를 밟고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11], 12쪽.)

혼자 힘으로 외설물을 보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문제는 여러분이 여전히 감독님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왜 감독님께 말하면 안 되는가?”입니다. 감독님과 이야기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독님은 이해하시고 용기를 주실 테고, 여러분이 과거의 죄를 버리기 위해 한 노력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합당한지 또 완전히 회개했는지 자주 의심이 들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감독님은 여러분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회생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강화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WILLIE HANDCART COMPANY
RESCUE SITE

WILLIE HANDCART COMPANY
RESCUE SITE

DEVIL'S
GATE

FO
+ MO

OUTH
PASS
N RIVER
MBARD FE

YOU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개척자 여정—

여러분은 실제로 개척자다.

애런 엘 웨스트
교회 역사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가끔 나는 내가 유명한 운동 선수라고 여기곤 했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했고, 내가 거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키도 작고, 날 수도 없고, 운동 실력도 그저 그랬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만족스러웠다. 그래도 상상하는 일은 재미있었다. 그저 머릿속 공상이라도 뭔가 색다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즐거웠다. 많은 사람이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다.

상상이라면, 우리 후기 성도들은 개척자를 상상하며 행군하기를 좋아한다. 개척자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얼추 맞춰서) 개척자들이 끌었던 손수레를 끌고(비슷하게나마) 개척자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음, 이건 별로 비슷하지 않지만) 개척자처럼 해 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개척자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자란 앞서가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길을 준비하거나 여는 사람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¹ 몬슨 회장은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진정한 개척자가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가장 으뜸 되시는 개척자, 곧 앞서가서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신 구주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구주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²

와서... 나를 ... 따르라. 이 단순한 말들은 우리가 진정한 개척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최근 한 스테이크에서 개척자 행군을 다녀온





테일러 에이.



이선 지.



하모니 시.

몇몇 현대 개척자의 눈을 통해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자.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라는 말은 권유이다. 그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테일러 에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안다.

테일러는 밝고 쾌활하며 영으로 가득하지만, 2년 전에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른 상태로 이동했다. 그녀는 개척자이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전 제 인생의 개척자예요. 최근 개종했거든요. 제가 걸어온 길은 정말 놀라웠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처럼 느껴져요. 일단 여행에 첫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테일러는 오라는 권유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유의 근원도 알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신경 쓰는 일이 없잖아요? 직장이나 기술에 너무 얽매어 있지요. 요즘 세계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개척자들이 했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 말이에요.”

따르라는 또 다른 권유이다. 이선 지는 개척자 행군을 하며 이 말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실은 행군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최상은 아니었어요. 기운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개척자들도 똑같은 느낌이었으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선은 왜 초기 개척자들이 그런 일을 기꺼이 했을까 궁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라면 금방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 보고 싶어요.”

행군 전, 과거의 개척자에 관해 읽었던 이선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들의 신앙에 영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몬슨 회장의 권고에 충실하면서, 사람들이 따라갈 길을 보여 주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 강조체 추가.) 하모니는 행군하러 집을 떠나면서 자신의 경험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테인크 행군을 위해 하모니가 갔던 길은 다른 사람들의 길과는 달랐다. 열다섯 살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이 희귀한 형태의 피부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모니는 스테이크의 행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무나 속상했어요.”

4년 뒤, 하모니의 스테이크에서 다시 행군을 간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암은 완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19살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도자로 참여하라는 부름이 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소망도 아시고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다면 우리를 축복하시리라는 것이 제 간증이에요.”

하모니는 시련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조언을 이렇게 전해 주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주님께 의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항상



마농을 위한 노래

원래는 즐기고 놀기 위한 저녁 시간이
청녀 한 사람을 향한, 넘치는 사랑 나눔 시간이 되었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청 녀들은 마냥 들떠 있었다. 실은 프랑스 남부에 속해 있던 와드 전체가 그랬다. 지도자들은 단합 도모를 위해, 식사와 오락을 즐기며 와드의 친목을 다지기로 했다. 지도자들은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의 청녀들이 예전부터 활동 일부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녁 발표회 시간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와드 청녀들은 전원이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다—한 명만 빼고. 마농은 공연할 수가 없었다. 2년 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열여섯 살인 마농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도 가능한 한 자주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며 늘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화학치료를 받는 동안 가끔은 너무 약해져서 쉬는 것 말고는 딴 도리가 없었다. 와드 회원들은 그녀를 위해 여러 번 금식하고 기도했었다. 마농이 청녀들과 함께 연습하거나 춤추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그날 모임과 식사에 참석할 수는 있을 거다. 그렇다면 마농에게 그 저녁 시간을 선사하면 어떨까?

마농에게 선사한 저녁 시간

모두가 그 생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열여섯 살인 에머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와드 사람들이 모두 마농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그녀가 느끼기를 바랐어요. 와드가 더욱 단합되기를 바란다면, 마농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와드 전체가 준비에 참여했다. 가족 회원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상호부조회는 청녀들을 위해 의상 만드는 것을 도왔다. 청년 성인들은 리허설과 최종 공연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조명, 음향 및 배경 영상)을 제공했다. 그리고 신권 형제들은 테이블과 의자 놓는



왼쪽부터: 어머니는 노래를 썼고, 청년들은 공연을 했으며, 마농은 초대 손님이었고, 청소년과 지도자들 모두가 도움을 주었다.

일을 도왔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와드 회원들이 이 모든 일을 했다. 열여섯 살인 아이올라 브이는 이렇게 말한다. “와드의 청소년들은 영적으로 정말 친하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는 지역이 달라서 학교에서도 서로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죠.”

열다섯 살인 인카 에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항상 연락하고 지내요, 휴대 전화 덕분에요. 우리는 자신이 한 다른 경험들을 나누며 서로 가르쳐요. 우리는 함께 의지할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모범이 되려 노력해요.” 가능하면 항상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디너쇼 리허설을 하면서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음을 느꼈다.

인카는 이렇게 설명했다. “리허설 전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실수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렇지만 다 같이 춤을 추니까 부끄러운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와드 회원들에게 보여 줄 때였으니까요.”

마농에게는 이 일이 겸손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친구들이 저녁 식사와 발표회 이야기를 하며 제가 초대 손님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걸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곳에 갈 생각을 하니 신나기도 했고요!”

사랑과 지지를 보여 준 발표회

곧 해가 저물고, 그 시간은 마농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여 줄 완벽한 기회가 되었다. 아이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은 당연히 훌륭했죠. 여기는 프랑스잖아요!”

식사를 마친 후, 프랑스어로 spectacle이라고 부르는 재능 발표회가 이어졌고, 발표회는 그 이름값을 했다. 관객들은 게임과 노래와 춤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다음 청년들은 연합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마농을 위해 부른 그 노래는 어머니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였다. 후렴의 가사에는 마농에게 전하는 모두의 사랑과 지지가 표현되어 있었다.

부디 포기하지 말아 줘
우리는 너를 믿으니까
네가 누구인지도 잊지 마
우리는 너를 믿으니까.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치 와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노래를 따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단순한 노래는 마치 용기와 연민, 가족과 친구, 단합과 신앙과 소망, 그리고 그치지 않는 기도를 노래하는 천상의 성가와도 같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후기 성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노래인 것 같았다.

그 친목 모임을 만든 지도자들의 의도는 와드를 단합시키는 것이었다. 마농에게 선사한 그 저녁 시간 덕분에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곳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은 마농과 그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느끼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올라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결코 혼자라는 것을 알아요.” ■

더 높이 오르십시오

“영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도록
계속해서 과제를 부여합니다.”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33쪽.



시온으로 가는 길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1862년 6월 2일, 미주리 주 리치먼드

“메리, 뭐가 보이니?” 메리의 새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메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고작 수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총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메리는 새어머니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의사를 모시러 집을 나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까이 오렴.” 메리는 침대 옆에 앉아 새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어머니가 가만히 이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직 몸이 안 좋으신 건 알아. 그래도 네가 남동생, 여동생이랑 쌍둥이 동생들 다 데리고 시온으로 가야 해. 꼭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족이 함께 로키 산맥으로 갈 수 있게 해 다오! 약속해 주겠니?”

메리는 가족이 얼마나 솔트레이크시티에 가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메리네 가족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후, 시온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메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심각한 뇌졸중을 앓으면서 몸 왼쪽이 마비되었습니다.

메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속삭이듯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곧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 메리는 새어머니와 한 약속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열네 살인 건 알지만, 우리 가족을 시온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쌍둥이 동생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일에 관해 생각해 주세요.”

며칠 후 아버지가 메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여전히 말소리가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차하고 수소, 젖소, 또 몇 가지 물건들을 사려고 땅과 광산을 팔았단다. 마차 부대 하나가 서부를 향해 곧 떠난다는구나. 그 사람들은 후기 성도가 아니지만, 아이오와까지는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을 게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성도들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어.”

메리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제 메리네도 시온에 가는 거예요!

메리가 긴 여행을 위해 가족들의 재비를 돕는 사이, 시간은 재빨리 흘렀습니다. “모든 게 다 잘될 거야. 우리도 곧 시온에 가겠지.” 메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메리는 뇌졸중이 다시 온 걸까 봐 겁이 났습니다.



메리는 포장마차 부대를 이끄는 인솔자에게 말했습니다.
“여행하기에는 아빠가 몹시 편찮으세요. 아빠가 회복되실 동안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그럴 순 없구나.” 매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얼굴을 본 인솔자는 한결 누그러진 말투로 일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여행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우리와 합류해도 된단다.” 달리 방도가 없던 메리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후, 메리는 다시 여행길에 오르기 위해 가족을
준비시켰습니다. “쌍둥이들하고 세라는 소를 타면 될 거야.”

그녀가 9살인 남동생 잭슨에게 일렸습니다. “아빠는 마차를
타시면 되고, 잭슨 너는 내가 소 모는 걸 도와줘.”

“무서워.”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는 이제
겨우 여섯 살이었고, 너른 소 등 위에 탄 모습을 보니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네 살배기 쌍둥이 동생들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둘러 가면 먼저 간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메리가 애써 기운을 내어 말했습니다.

메리의 가족은 몇 날 며칠,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이제는
메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차 부대는 메리네 가족을 기다려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리네는 시온까지 홀로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1863년 네브래스카 주 플랫 강

“워워!” 메리가 고삐를 뒤로 당기자 소들이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모두 괜찮나?” 메리는 소를 타고 오는 제일 어린 세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랫 강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고 진흙이 많은 강이었습니다. “이제 또 뭐야?” 남동생 잭슨이 물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홉 살인 동생은 메리를 도와 소를 몰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여전히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는 마차 뒤에 누워 계셨습니다.

“강을 건널 필요는 없어. 그냥 이 강을 따라가기로 하자.” 메리가 말했습니다. 시온을 향해 난 길은 따로 없었지만, 이 강이 서쪽을 향해 가는 메리네 가족을 이끌어 줄 것이었습니다. “이랴!”

메리는 물론 개척자들이 플랫 강 저편에서 여행하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 메리 가족은 인디언 거주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메리 가족은 그 뒤로도 여행길에서 다른 마차 행렬은 한 번도 보지 못할 터였습니다.

여행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메리는 먼지구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그녀는 소에게도, 자신에게도 연신 속삭였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말을 타고 있는 인디언 몇 명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메리 아버지가 누워 있는 마차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선해 보였습니다. “편찮으신가?” 그가 아버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메리가 작은 소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네 언어로 뭐라 외쳤고, 같이 왔던 사람들은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빨리 말을 타고 가 버렸습니다.

메리는 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잭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자.” 메리는 세라와 쌍둥이 동생들을 안아 내려 주었습니다.

“메리 누나, 와서 이것 좀 봐!” 잭슨이



말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그가 손에 묵직한 뭔가를 들고
이쪽으로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생 오리와 토끼란다. 너희들에게 주마.” 그가 말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두 팔에 사냥감을 내려놓는 그를 할 말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고는 지는 해 저편으로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먹을거리야!” 메리가 외쳤습니다. “고기라고!” 그가 준
선물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기적은 여행 내내 이어졌습니다. 버펄로 소 떼를
만났지만, 마차 앞에서 무리가 나뉘더니 마차 양편으로 지나가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일어 쌍둥이 중 한 명이
강으로 휩쓸려 들어갔지만, 메리가 구해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행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차는
더 많이 빠져대고 소들도 더 지쳐 보였습니다. 땅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산을 넘는 것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메리네 가족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파른 산꼭대기를 막 내려올 무렵, 메리는 마차를 몰고 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분이 유타 주 리하이로 가는 길을 알려 주실지도 몰라.”
메리가 잭슨에게 말했습니다. 유타 주 리하이에는 큰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메리가 지금 위치를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에코
협곡이란다.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
그런데 다른 일행은 어디 있는 게냐?”

그간 있었던 일을 들려주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너희들끼리 1,000마일(1,609km)도 넘는 길을 왔다는
말이냐?”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정말이지,
용감한 소녀로구나. 리하이로 가는 길을 알려 주마. 거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가 흙바닥에 가는 길을 쓱쓱 그려 주자 메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 시온에 거의 다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낼지도 몰라.”

메리와 그녀의 가족은 결국 유타 주 리하이에 도달했습니다.
메리는 후에 결혼해서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메리가 보여 준
신앙과 용기의 모범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



선지자를 위한 금식

실리오티는 김볼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회장님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랐죠.

레베카 제이 칼슨
실화에 근거함.

“기도하옵나니,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며, 우리가 하는 금식을 축복하소서.”(영어찬송가, 138장)

이 이야기는 1981년 통가에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실 리오티는 학교를 마치고 노란 파파야 나무와 빨강계 익은 망고나무 사이를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하지만 실리오티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은 실리오티가 속한 통가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다같이 선지자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을 위해 금식하는 날이었거든요. 선지자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오늘 밤,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마치기로 했죠.

집에 도착하자, 구덩이를 파서 만든 오븐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실리오티는 회원들과 함께 금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기뻐지만, 학교에 가는 날 금식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실리오티는 배고픔을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딸나무를 모으고, 마당에 그늘을 드리운 큰 빵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을 치웠어요.

일을 마치고 손을 씻으면서 실리오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 한 모금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해하실 거야.” 그러자 또, 자신은 김볼 회장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실리오티는 회장님의 건강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실리오티는 현관에 앉아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어요. 힘이 없고 피곤했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면 금식을 그만해도 된단다.”

실리오티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자, 다 같이 구덩이 오븐을 열어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앞사귀에 싸서 익힌 돼지고기, 생선, 그리고 코코넛 우유를 넣고 구운 빵나무 열매를

꺼냈어요. 가족들은 음식을 천에 싸서 길가로 나가 버스를 기다렸어요.

길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모두 각자 준비한 음식을 들고 있었죠. 모두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버스에 올라탔어요.

실리오티는 엄마 옆에 비좁게 남은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어둑해질 때쯤에야 버스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예배당에 들어선 실리오티는 가족을 비롯한 수백 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실리오티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김볼 회장님이 꼭 낮게 해 주세요.” 실리오티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속에 느껴지는 조용하고 따뜻한 느낌이 김볼 회장님은 괜찮으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눈을 뜨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했고, 실리오티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실리오티도 해냈어요!

김볼 회장은 수술을 잘 견뎌 냈고, 그 후 4년을 더 선지자로 더 봉사했다. ■

글쓴이는 미국 하와이 주에 산다.



우리는 왜 금식하고 기도하나요?

“금식과 기도는 함께 행해집니다. 금식을 하고 신앙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79쪽.



질문 있어요

금식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식 주일이 되면, 우리는 보통 두 끼 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식사에 쓸 만큼의 돈을 내지요. 그것을 “금식 헌금”이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면 축복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금식은 부모님이나 자신이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금식을 할 수 없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 동안 성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영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금식할 수 있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 금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디 오, 9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제가 금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금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성신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금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끼를 먹지 않았고, 다음에는 두 끼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았어요.
애나 디, 9세, 미국 네바다 주



성신이 금식은 옳은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면, 그 느낌으로 제가 금식을 할 만큼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 엄마 아빠께 그게 맞는 느낌인지 여쭙볼 거예요.
브루클린 알, 7세, 뉴질랜드 오클랜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언제 금식을 시작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실 거예요.
리암 피, 7세, 미국 유타 주



침례를 받으면 금식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언제 어떻게 금식을 시작해야 할지 여쭙볼 거예요.
브라이언 케이, 7세, 미국 워싱턴 주



래리 에스 케처
장로
침십인 정원회



여러분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복음을 나누며 빛나는 모범을 보여 준, 제가 아는 두 소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딸 벨리가 여덟 살이 되어 갈 무렵, 저희 가족은 스위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벨리는 침례를 받을 일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벨리의 생일이 며칠 안 남았을 때, 저희는 친구 티나와 함께 가정의 밤을 열었습니다. 티나는 선교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과가 끝나자, 저희는 티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티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중국어로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티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티나가 기도할 때 영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벨리는 티나와 함께 같은 날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티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적어도 벨리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데 생각을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티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벨리와 티나는 그 주말에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티나는 저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티나는

가정의 밤에서 자신이 한 기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티나는 침례를 받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기를 여쭙며 기도한 터였습니다. 그날 밤 티나는 벨리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스민이란 친구의 모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스민은 열두 살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동 지역에 살던 시절에 재스민의 가족과 가까워졌습니다. 재스민의 나라에서는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스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으로써 복음을 나누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스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었습니다. 재스민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스민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벨리와 재스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사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마술 지갑



어맨다 워터스

실화에 근거함

“언제나 옳은 일 선택하면 마음이 행복하여지네.”(어린이 노래책, 82쪽)

“맛아!” 맨디가 말했습니다. 맨디는 남동생을 툭 치고 저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맨디네 가족은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때까지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전자레인지에 데힌 라비올리를 먹는 것은 재미났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는 한 가지 별로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맨디네 가족은 호텔의 지배인 사무실 바로 위층에 묵고 있었는데, 지배인 아저씨는 맨디네 남매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코끼리 떼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방을 내놓겠습니까!” 지배인 아저씨가 아빠께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맨디의 남동생 애런이 침대에서 뛰어내려 바닥에서 쿵쿵 발을 굴렀습니다. 맨디가 움찔하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뛰면 안 돼, 살금살금 걷자, 응?”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이구.” 맨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수화기를 집어 들고 지배인 아저씨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엄마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전화를 끊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에드워드, 맨디, 애런과 에밀리를 재워야겠다. 크리스틴과 대니얼 데리고 산책 좀 다녀와 줄 수 있니?”

맨디는 동생들을 데리고 호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작은 갈색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안에는 돈도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이것 봐!” 맨디가 지갑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지배인 사무실에 가져다 놔야 해.”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맨디는 뱃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갖다 주어야 하지? 엄마나 아빠가 나중에 돌려주되면 안 되나?

하지만 맨디는 어떻게 해야 옳은지 알았습니다.

맨디와 동생들은 사무실 문을 열고 우물쭈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배인 아저씨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이 지갑을 주웠어요.” 맨디는 이렇게 말하고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에 지갑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다른 아저씨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내 지갑이야.” 아저씨는 얼른 지갑을 살펴보셨습니다. “다 그대로 있네. 고맙다, 애들아!”

맨디가 지배인 아저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얼굴을 풀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자 대니얼이 물었습니다. “그거 마술 지갑이었어?”

“왜 그게 마술 지갑이라고 생각했니?” 에드워드가 되물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가 행복한 아저씨로 바뀌었잖아!”

에드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갑이 마법을 부린 건 아니야. 아저씨가 행복해하신 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였어.”

맨디는 가슴 속에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맨디는 아빠와 함께 한 주 치 방값을 치르러 갔습니다. 지배인 아저씨가 맨디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갑을 찾아준 뒤로, 아저씨는 한 번밖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정직하게 행동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한 전화였습니다. 맨디는 새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건 정말 마술 같아.” 맨디는 생각했습니다. 맨디가 손을 흔들자, 아저씨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절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 주에 산다.



정직하게 생활하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을 봤어요. 제가 그걸 갖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그걸 주워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옳은 일을 선택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발견하면,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흠치는 게 되는 거니까요.

타일러 비, 7세, 미국 오리건 주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 평의회가 무엇인가요?

가족 평의회는 주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부모님 한 분만 있어도 되고, 가족 전체가 모여도 됩니다. 가족 평의회는 이렇게 합니다.



전자 기기는 끄고,
서로를 바라보며
귀 기울입니다.

부모님께
걱정되거나
두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적어 둡니다.



어려움을 겪는
형제나 자매를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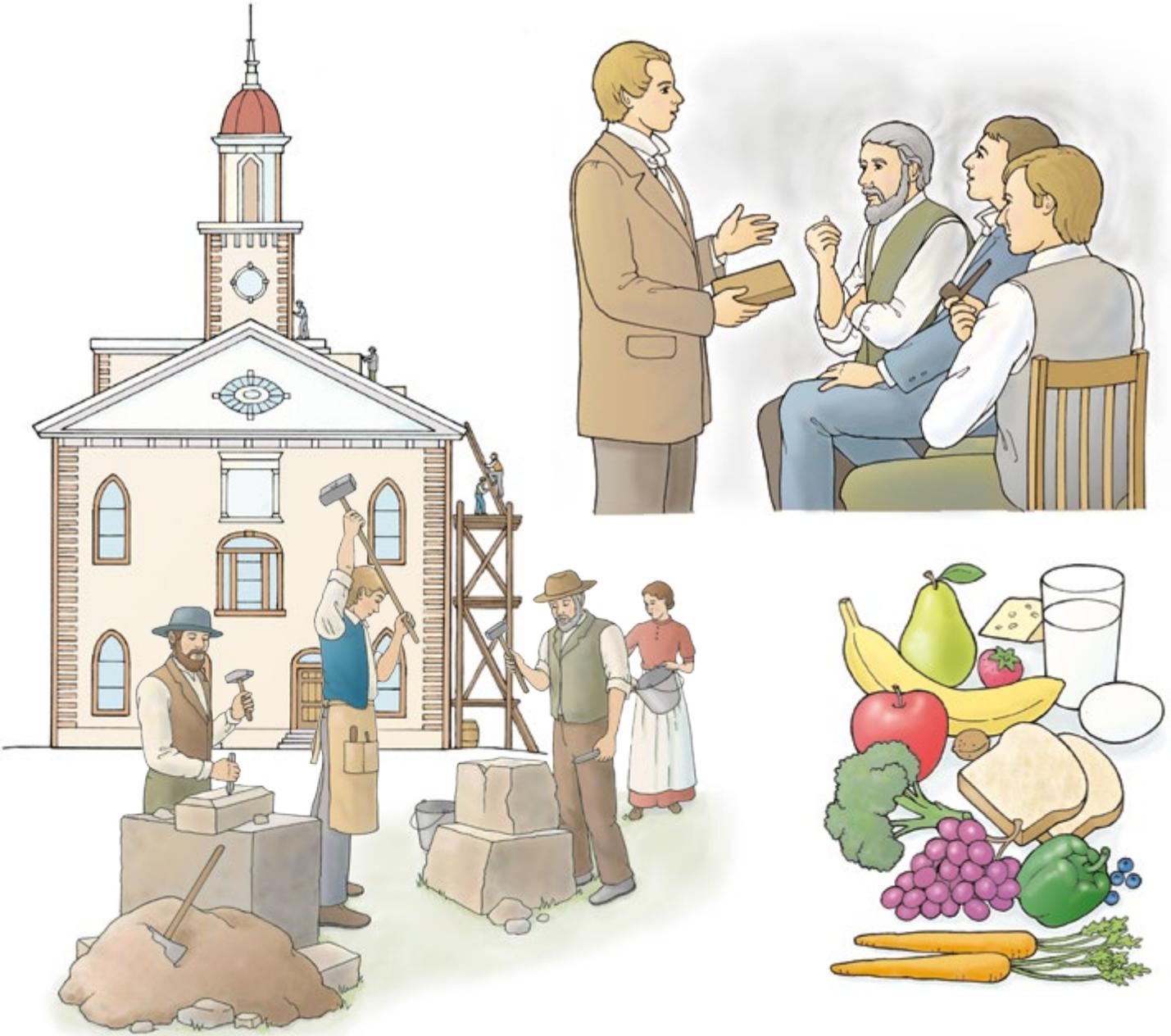


기도가 더해지면, 가족 평의회를 통해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평의회를 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가족 평의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3~65쪽에서 발췌.

커틀랜드와 지혜의 말씀

아래 인물 그림들을 잘라서 교회 역사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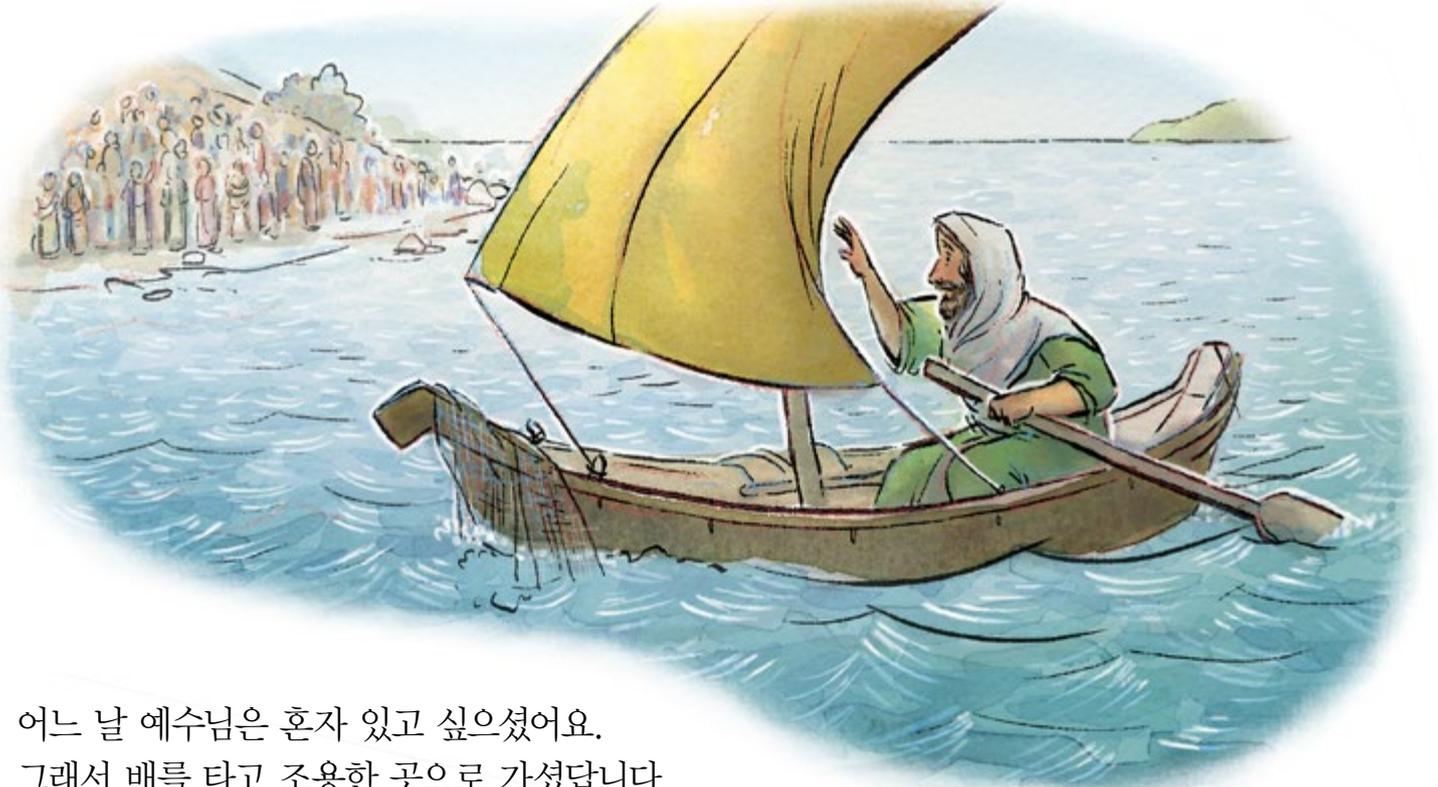


초기의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살던 시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헌납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는 교리와 성약 110편에 나옵니다.) 또한,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칠 학교를 열라고 이르셨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남성 중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셉과 어머니는 연기가 나고 쓰레기가 남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주님께 담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었고, 지금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89편을 읽어 보세요.

Liahona.Ids.org에 들어가서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더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김 웹 리드



어느 날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답니다.
얼마 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하루가 끝나
가자, 모두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도시로 보내어 음식을 사 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예수님은 그 음식을 축복하신
뒤 잘게 자르셨어요. 제자들이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여자와 남자가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다 먹은 뒤에도 열두 바구니나 남았지요!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

마태복음 14장 13~21절에서.

나는 경전을 읽는 것이 좋아요





제이 르우벤
클라크(1871~1961)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마지막 손수레를 끌던 사람들

그 마지막 손수레에는 헌신, 충심, 고결,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들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 손수레 행렬들의 맨
끝을 지키며 느릿느릿 평원을
헤쳐 나갔던 마지막 손수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 손수레에서는 멀리서
앞서가는 지도자들을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자욱한 흙먼지 구름에
시야가 가려 깨끗한 하늘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손수레에
탔던 사람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발이 아팠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보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회복된 복음은 참되며, 주님께서 앞에 선
지도자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 신앙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더없이 강해질 때면 잠시나마 천국의
영광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까마득히 멀게만 보이는 반면,
궁핍과 피로, 마음의 고통, 그리고 이따금
찾아오는 낙담은 항상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그 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곤 했습니다.

꿈이 사라지면 그들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이나 칭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손수레에는 헌신, 충심,
고결,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그들은 흙먼지를 뚫고
협곡을 지나 더딘 걸음으로 나아간
끝에 안식과 집이 있는 그 계곡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신앙과 뛰어난 기량을
겸비한 이 수백 명의 충실한 영혼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리검 [영] 형제는 또다시 이들을
하나님 왕국의 기치 아래 불러모아, 이제

그들은 피난처가 된 광활한 산맥 곳곳의
계곡에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황소 떼에 멩에를
메우고, 마차를 꾸려 새로운 계곡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그들만의 모세가 지닌 지혜와
그의 신성한 인도를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발휘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수천, 수만, 수억의
개척자들은 브리검 영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만큼이나 충실하게 자신의
부름과 숙명을 이행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더 두드러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 역시 말과 생각, 행동과
신앙의 개척자였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왕국을 세우는 것은 선택된 소수가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 아니라, 열방에서
흘러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신성하게 부름받은 그들의 지도자를
따르며 땀 흘려 일군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겸손하고 위대한
영들께 ...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과 겸허한 경의를 바칩니다. ■

194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마지막 손수레를
끌던 이들에게"에서 발췌.



마지막 손수레를 끌던 이들에게
(1954년), 린 포셋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반으로, 개척자들은 물론 개척자 이등으로 알려진 이 여행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향하는 1,600 km의 여정을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갔다. 그 마차 행렬의 마지막에 있던 자들은 지도자들을 거의 보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나를 구한

유일한 것

수호는 인종 차별과 따돌림을 겪었지만 복음을 찾고서 다시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44쪽

청소년

50쪽



일주일 내내 균건하게 생활하기

어떻게 성찬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균건하게 생활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어린이

질문 있어요

어린이들은 언제
금식을 시작할 수 있나요?



70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